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文學碩士學位論文

《漢城旬報》 구성의 연원과  
학술기사의 재구성 양상

2017년 7월

서울대학교 大學院

國史學科

李尙宰

## 국문초록

본 논문은 조선 최초의 근대적 신문으로 알려진 《漢城旬報》의 지성사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漢城旬報》는 1883년 10월부터 갑신정변의 여파로 폐간되기까지 약 1년 동안 조선 정부가 발간한 매체로, 개항 후 萬國公法으로 표상되는 새로운 국제 질서에 적응하기 위한 조선의 정책적 산물이었다. 이에 《漢城旬報》 지면의 대부분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보도 기사와 서양 지식을 소개하는 학술기사로 채워져 있다.

《漢城旬報》의 필진은 창간사를 통해 새로운 지식과 정보들에 대한 포핍(褒貶)과 권징(勸懲)의 뜻을 담고자 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새로운 지식에 대한 도덕적, 학문적 기준을 제공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필진의 취지가 가장 잘 반영된 것은 서양 지식을 소개하기 위한 학술기사이다. 이들 학술기사는 《漢城旬報》 필진들이 당대 동아시아에서 통용되던 다양한 서화서와 잡지들로부터 관련 지식을 선별하고 재구성한 것이었다. 바로 그와 같은 속성은 《漢城旬報》에 대한 연구가 언론사적 의의에 못지않게 지성사적 맥락으로 확장되고 심화되어야 할 필요를 웅변한다.

본 논문은 먼저 지적 구성물로서의 《漢城旬報》가 가진 구성적 특징의 연원을 추적하였다. 외국기사에 편중된 편집은 《漢城旬報》 창간 준비를 주도한 유길준의 진단대로 낙후된 교통과 사실의 보도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1880년대 조선의 현실 속에서는 차라리 ‘강요된 선택’에 가까웠다. 그에 비해 국제 정세와 서양 지식을 소개하는 외국기사들은 조선 정부가 정책적으로 수집한 時務서적들과 외국의 정기간행물들에 담긴 다양한 분야의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었다. 《漢城旬報》의 세부적인 지면 구성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가 창간한 일본의 《時事新報》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19세기 중국에서 활동한 개신교 선교사들이 지식 선교의 목적으로 발간한 잡지형 정기간행물들과 매우 흡사하였다. 특히 《漢城旬報》는 1874년부터 상해에서 발간된 《萬國公報》의 체재와 의제를 상당부분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

다.

《漢城旬報》의 지성사적 의의는 그 구성의 연원은 물론 함께 전체 학술기사의 분야와 출처와 주요 내용에 대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학술기사는 당대 조선 정부의 서적 수집을 통해 축적된 지식 아카이브를 기반으로 한 글들이므로, 수집된 서적의 경향성은 곧 학술기사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출처를 적시하고 있지 않은 대부분 학술기사들의 활용 출처는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다양했다. 한역서학서와 청의 지식 잡지들은 물론 일부 일역서학서도 활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기사의 출처가 규명됨에 따라 비로소 기사 내에 혼재되어 있던 지식 정보와 그에 대한 필진의 해석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필진들의 지식 재구성 양상이 드러나게 되었다. 필진들은 새로운 지식에 대한 사건을 덧붙이기도 하였고, 필요에 따라 복수의 출처로부터 지식을 모아 새롭게 기사를 구성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서양 지식에 대한 중국의 번역과 일본의 번역이 한 기사 내에서 공존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서양을 모방한 메이지 일본의 제도에 대한 관심은 일본으로부터 수집한 서적의 종류는 물론, 서양의 제도를 소개하는 학술기사들의 서사 구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漢城旬報》의 학술기사들은 지식의 선별이라는 의미는 물론 지식 자체의 재구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조선 역사상 최초의 시도였던 정기간행물을 통한 서양 지식의 재구성의 성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으며, 불과 1년에 그친 발간 기간은 그 한계를 극복하기에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

**주요어** : 한성순보, 만국공보, 공보초략, 학술기사, 서양지식, 재구성  
**학 번** : 2013-22770

# 목 차

머리말 .....	1
一. 《漢城旬報》의 구성적 특징과 그 연원 .....	9
1. 《漢城旬報》의 외국기사 편중성과 국내적 배경 .....	9
2. 19세기 중국 정기간행물의 영향 .....	10
二. 《漢城旬報》의 학술기사 재구성 양상 .....	26
1. 새로운 지식의 축적과 그 경향 .....	28
2. 축적된 지식의 재구성 .....	37
맺음말 .....	54
부표 1 .....	56
參考文獻 .....	71
Abstract .....	75

## 머리말

19세기 중반에 조선이 겪은 두 차례의 양요(洋擾)와 운요호를 앞세운 일본의 포함외교(砲艦外交)는 서양식 군비와 첨단 조선 기술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페리의 흑선을 모방한 일본의 운요호 도발은 1876년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로 귀결되었다. 조규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와는 별개로, 일본과 새로운 조약을 맺으면서 조선은 동아시아에서 만국공법(萬國公法)으로 표상된 세계체제 속으로 포섭되기 시작하였다. 이를 계기로 조선은 대원군 집권 하에 추진하던 신무기제조에 관심을 갖는 한편,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대한 정보와 지식들을 외국으로부터 수집하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일본에 파견한 조사시찰단(朝土視察團)과 중국에 파견한 영선사(領選使) 일행이 수집, 보고한 여러 서적들과 정기 간행물, 그리고 시찰 보고서들이 바로 그것이다. 현재 규장각과 장서각에는 당대에 작성된 여러 서목이 남아있는데, 그 안에 기재되어 있는 다양한 서적들은 이렇게 수집한 지식과 정보의 실체라고 할 수 있다.<sup>1)</sup>

그러나 규장각과 집옥재 등지에 수집해 둔 수많은 서적들과 신문들의 존재들이 당시 조선 정부의 새로운 지식 활용 양상이나 실제적인 이해의 수준을 곧바로 반영한다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이 서적들과 신문들은 개항 국면을 맞은 조선의 필요에 따라 수집되었으나, 수집 여하를 떠나 실제로 조선의 지식장 안에 어느 정도로 포섭되었는가 하는 것은 별개로 살펴볼 문제이다. 과거의 특정 텍스트가 실제로 어떤 맥락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이해되고 활용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텍스트에 담

---

1) 1880년대 수집한 외국 서적들의 서목들로는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內閣藏書彙編》내의 《新內下書目》, 《春安黨書目》과 《內下冊子目錄》이 있다. 추가로 김윤식(金允植)이 영선사로 파견되어 수집해 온 서적들은 金允植, 《陰晴史》, 高宗 19년 4월 26일 條에 기록되어 있다.

긴 지식들을 당대의 사람들이 재구성한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1883년 10월에 정부가 발간을 시작한 《漢城旬報》와 이어 1886년에 발간한 《漢城周報》는 한국 최초의 근대적 신문이라는 의미 못지 않게, 19세기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재구성한 산물이라는 의의를 가진다.

《漢城旬報》가 기획되고 발간되어 갑신정변을 계기로 폐간되기까지의 약 2년여의 기간은 1882년 7월 청군에 의한 임오군란의 진압과 대원군 납치를 계기로 고종이 개혁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진행했던 시기였다.<sup>2)</sup> 임오군란 이후의 정국은 청의 내정간섭이 본격화 되는 양상을 띠었지만, 양무운동의 개혁 노선을 지지한 친청 관료들과 더불어 개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 고종에게는 역설적으로 본격적인 개혁을 시도할 기회로 작용하였다. 또한 이 시기는 이후 반청노선을 내세워 갑신정변을 주도하게 되는 조사시찰단 출신의 관료들이 새로 설치된 양아문의 요직을 맡아 개혁에 대한 그들의 노선을 정책적으로 표출하기 시작한 시점이기도 했다. 그 결과 이 시기 조정은 친청 세력과 반청세력이 불안한 공존을 이어가면서도 인사, 재정, 법률, 상업, 군사 제도에 걸쳐 다양한 개혁 정책이 제의되고 시도되었다.<sup>3)</sup> 《漢城旬報》는 바로 이러한 국면 속에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들을 알리고 각종 개혁 방책들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간되었으므로, 당대 조선 정부 관료들의 개혁에 대한 입장과 문제의식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漢城旬報》, 《漢城周報》에 대한 초기의 연구들은 주로 한국 최초의 근대적 신문이라는 의미에 주목하였다. 두 신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로는 발간 과정을 실록과 승정원일기, 각종 공문서류들을 통해 실증적

---

2) 김도형, 2014, 《근대 한국의 문명전환과 개혁론》, 지식산업사, 93쪽.

3) 임오군란 후 갑신정변에 이르기까지 약 2년 동안의 조선 정부 내 권력집단의 구도와 개혁 정책에 대해서는: 연갑수, 2008, 《고종대 정치변동 연구》, 일지사, 92-110쪽.

으로 밝힌 이광린의 연구를 들 수 있다.<sup>4)</sup> 그는 유길준(兪吉濬), 박영효(朴永暎) 등이 신문 창간에 뜻을 두고 세웠던 계획으로부터 신문이 발간 될 때까지의 과정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또한 두 신문의 발간을 조선의 문명개화를 위한 움직임으로 평가하고, 1880년대 조선 정부의 근대화 과정을 잘 나타내고 있다는 적극적인 평가를 내렸다. 정진석과 최준은 두 신문이 근대적 신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그 역사적 의의를 부각시켰다.<sup>5)</sup> 특히 정진석은 신문의 뉴스원과 기사들의 통계 분석을 시도했으며, 신문 발행을 담당한 박문국의 상부 기관이었던 통리고섭통상사무아문일기(《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日記》)<sup>6)</sup>를 통해 대략 3,000부 정도가 배포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sup>7)</sup> 이들 논문들은 주로 신문학적 관점에서 《漢城旬報》, 《漢城周報》를 근대 신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문 창간의 목표가 국민 교화(敎化), 그리고 문명개화(文明開化)의 추구였다고 보고 있다.

《漢城旬報》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 관계가 밝혀진 이후, 신문에 실린 논설 형태의 기사들 중 특정 주제를 선택하여 분석하는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김봉진의 〈漢城周報의 발행과 조선의 萬國公法 수용〉, 김세민의 〈漢城旬報, 周報를 통해 본 만국공법관〉은 19세기 말 세계 체제의 상징으로 표상되던 만국공법이 《漢城旬報》에서 소개되고 있는 양상을 분석했다.<sup>8)</sup> 또한 《漢城旬報》에 나타나는 개화론의 내용을 분석한 정대철, 최정화의 연구는 1880년대 조선 정부의 의지가 담긴 개화론과 문명론의 초기 형태를 밝히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sup>9)</sup> 이러한 연구들은

4) 이광린, 〈漢城旬報와 漢城周報에 對한 一考察〉, 《歷史學報》 제32집, 1-45쪽.  
 5) 정진석, 1983, 〈漢城旬報 周報에 관한 研究〉, 《관훈저널》 36, 74-142쪽. 최준, 1983, 〈漢城旬報의 史的 意義〉, 《관훈저널》 36, 23-38쪽.  
 6)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日記》, 奎 17836-v.1-44.  
 7) 정진석, 1983, *ibid*, 115-118쪽.  
 8) 김봉진, 1986, 〈漢城周報의 발행과 조선의 萬國公法 수용〉, 《한국 전통사회의 구조와 변동》, 문학과지성사, 149-208쪽. 김세민, 1997, 〈漢城旬報, 周報를 통해 본 만국공법관〉, 《鄉土서울》 第57號,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37-161쪽.  
 9) 정대철, 1984, 〈漢城旬報, 周報의 開化方向에 관한 考察〉, 《韓國學論集》 제5집,



1880년대 조선 정부가 단행한 일련의 정치 활동들을 개화 정책의 시행으로 규정짓고, 이를 국가적으로 홍보하고 뒷받침하기 위한 두 신문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각시켰다. 두 신문에 대한 이들 연구들의 접근 방식은 《漢城旬報》와 《漢城周報》에 대한 가장 유력했던 연구 경향으로, 신문에 실린 근대적 성격의 기사들이 다루고 있는 주제들을 새 시대에 발맞추기 위한 조선 정부의 정책적 지향과 접속시키는 데 주력했다.

이러한 연구들 가운데 한보람의 연구는 기존 《漢城旬報》 연구들의 경향과 달리, 《漢城旬報》의 전체 기사를 대상으로 하는 거시적인 분석을 시도하여 주목을 끈다.<sup>10)</sup> 그는 정진석이 1983년의 연구에서 시도한 전체 기사의 통계 작업을 한층 더 세분화하여 기사 출처에 중점을 둔 전체적인 분류를 시도했고, 그 결과 《漢城旬報》의 전체적인 성격을 더욱 선명히 드러냈다. 그 결과 《漢城旬報》가 인용했던 외국 기사들은 압도적인 비중으로 청의 매체들로부터 가져왔음이 밝혀졌고, 당시 조선 정부가 시행하고자 했던 정책들과도 무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최근의 연구들은 《漢城旬報》에 실린 논설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식과 정보들을 소개하는 학술기사들에까지도 관심을 넓혀 신문의 지성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신문 매체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외국으로부터 새롭게 유입된 지식들을 독자에게 소개하고 이해시키기 위한 지적 구성물로서의 성격에까지 그 연구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김연희의 논문들을 수 있다.<sup>11)</sup> 그는 《漢城旬報》와 《漢城周報》의 기사들 중 과학기술과 관련한 기사들을 통해 고종시대 서구 문물의 수용의 노력을 구체적으

---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93-126쪽. 최정화, 1987, 〈漢城旬報에 나타난 文明開化論의 성격〉, 동국대학교 역사교육과 석사논문.

10) 한보람, 2005, 〈1880년대 조선정부의 개화정책을 위한 국제정보수집-《漢城旬報》의 관련 기사 분석〉, 《震檀學報》 100, 109-164쪽

11) 김연희, 2011, 〈《漢城旬報》 및 《漢城周報》의 과학기술 기사로 본 고종시대 서구 문물 수용 노력〉, 《한국과학사학회지》 Vol.33, 1-39쪽.

로 밝혔다. 그 과정에서 그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던 과학기술 기사들의 내용을 소개하고, 주로 어떤 책과 매체들로부터 과학기술 정보들을 입수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 또한 시도하였다. 그의 연구는 향후 진행될 《漢城旬報》에 대한 과학사 연구에 있어 많은 참고점들을 제공하는 동시에, 원 출처와의 비교를 통한 연구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김수자의 연구<sup>12)</sup>는 《漢城旬報》가 서양 과학을 보편적인 학문, 다시 말해 공학(公學)의 관점에서 파악하여 자강의 동력으로 삼고자 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의 연구는 《漢城旬報》에 나타나는 서양 과학에 대한 인식을 동도서기(東道西器)적 태도로 규정하며 비판적 평가를, 서양에서 생산된 과학 지식들 자체에 대한 조선 지식인들의 입장을 읽어내려는 시도의 필요를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지금까지 거론한 연구들 이외에도 《漢城旬報》를 대상으로 한 다수의 연구들이 현재까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기존 연구들의 성과를 종합해보면, 《漢城旬報》는 전통적인 조보(朝報)를 기사원으로 하는 내국기사들과 더불어 외국의 매체들을 기사원으로 하는 외국기사들을 통해 세계 정세와 새로운 지식들을 다양하게 담아내고 있는 정기간행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 연구만으로는 《漢城旬報》, 《漢城周報》에 대한 지성사 연구를 뒷받침 할 토대가 여전히 부족하다. 이는 《漢城旬報》라는 매체가 갖고 있는 소식지로서의 성격과는 별개로, 새로운 지식들을 선별하여 구성해 낸 지식 구성물로서의 성격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점에서 기인한다. 《漢城旬報》의 지적 구성물로서의 성격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핵심에 해당하는 학술기사들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자리한다.

지식 구성물로서의 《漢城旬報》를 재조명하기 위해서는 기존 연구들

12) 김수자, 2012, <근대 초 《漢城旬報》에 나타난 공학으로서의 과학과 근대 지식>, 《梨花史學研究》 45, 141-168쪽.

이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다음과 같은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보완될 수 있다. 첫째, ‘한국 최초의 근대적 신문’이라는 규정적 정의를 넘어, 《漢城旬報》의 구성상의 특징이 어디에서 연원하고 있는가에 대한 충분한 고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조선 정부의 국내적 상황과 더불어 19세기 동아시아 매체사 속에서 지식 구성물로서의 《漢城旬報》라는 매체가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교사적 검토를 필요로 한다. 요컨대 《漢城旬報》가 현존하는 형태와 같이 다수의 학술기사들을 포함한 잡지의 형태로 발간되는 데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배경이 무엇이었는데, 그에 대한 탐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漢城旬報》의 발간은 중국과 일본 및 서구 각국에서 활발히 발간되던 신문들의 유용성을 목격한 조선 관료들의 의지에 따라 기획된 최초의 매체 발간이었던 만큼, 지면상의 구성을 정하는 과정에서 당대 유통되던 동아시아의 매체들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 이를 밝히는 일은 《漢城旬報》를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조망해볼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漢城旬報》의 학술기사들의 원천이 된 1880년대 조선 정부의 서적 수집 현황과 경향이 학술기사들과 어떻게 조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술기사들의 원 출처를 규명하는 작업이 필수적이지만 이에 대한 선행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sup>13)</sup> 《漢城旬報》의 구성상 매 호에 ‘各國近事’라는 난분류로 국외 기사들을 포괄하여 담고 있는데, 그 안에는 국제 정세를 소개하는 일반 소식 기사들과 더불어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편집진이 선별한 다양한 분야의 학술기사들이 함께 실려 있다. 이 학술기사들의 존재로 인해 《漢城旬報》

13) 한보람의 선행 연구에 의해 《漢城旬報》 기사들의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외기사들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은 파악되었으나, 일반 보도 기사들과 달리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漢城旬報》 편집진이 기획하여 실은 학술기사들에 대해서는 그 출처와 내용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술기사들 중 과학기술 기사들에 대한 출처는 김연희의 연구에서 일부 규명된 바 있다. 한보람, 2005, *ibid.*, 114쪽. 김연희 2011, *ibid.*

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들을 취사선택하여 재구성한 지적 구성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된다. 그러한 점에서 학술기사들에 대한 총체적인 재검토는 《漢城旬報》의 지성사적 의미를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마지막으로, 《漢城旬報》 학술기사들에 담긴 새로운 지식들의 역사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漢城旬報》에 등장하는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지식들은 주로 중국과 일본에서 번역된 서양 지식들이며, 1880년대 초반 조선에 유통된 서양 지식의 실체이다. 그 지성사적 의미를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기의 전후 조선 사회에서 서양 지식을 집대성한 사례와의 비교 연구가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漢城旬報》의 학술기사들에 필적할만한 서양 지식 편찬물과의 비교가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漢城旬報》 내에 수록된 학술기사들에 주목하여, 1장에서는 《漢城旬報》가 현존하는 체계와 지면 구성을 갖추게 된 연원을 국내적 배경과 국외적 배경으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그 지식 구성물로서의 성격을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2장에서는 학술기사들에 대한 총체적 검토를 통해 1880년대 조선 정부가 수집한 외국 서적들의 현황을 살펴 이들이 《漢城旬報》의 학술기사들과 어떻게 조응하고 있는지를 살펴 보겠다. 이 과정에서 조선 정부가 1880년대에 입수한 서적들의 현황을 검토하고, 이어 《漢城旬報》의 학술기사들의 출처, 주제, 주요 내용을 총체적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또한 《漢城旬報》의 학술기사들이 갖는 역사성을 평가하기 위해 1879년 역관 金景遂가 서양 지식들을 집대성하여 편찬한 《公報抄略》에 주목하여, 《公報抄略》에 비해 《漢城旬報》의 학술기사들이 갖는 차별점이 무엇인가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 활용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우선 《漢城旬報》는 창간호부터 36호까지 남아있는 서울대학교 소장본의 영인본을 활용하였다. 메이

지 일본의 신문 《時事新報》는 東京大學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는 복각판을 활용하였다. 청의 잡지 《萬國公報》는 1968년에 중국의 華文書局股份有限公司에서 발간한 《青末民初報刊叢書-影印教會新報萬國公報》를 활용하였다. 《公報抄略》은 현재 확인 가능한 소장본들 중 가장 원형이 잘 보존된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을 활용하였다. 《漢城旬報》 학술 기사들의 출처를 규명하기 위한 다양한 한역서학서와 일역서학서 및 서목들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日本國會圖書館, 早稻田大學圖書館, 및 Harvard-Yenching Institute에 소장된 자료들을 활용하였다.

## 一. 《漢城旬報》의 구성적 특징과 그 연원

《漢城旬報》의 외연적, 구성적 특징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간호부터 마지막 호에 이르기까지 매호 스무 페이지를 넘는 상당한 분량으로 발간하였다. 둘째, 국내 기사는 조정 내의 소식과 일부 私論에 국한되는 반면, 외국의 매체에 의존한 외국기사(各國近事)들이 지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양의 학술적, 기술적 성과들에 대한 정보 및 선교사들에 의해 생산 혹은 번역된 새로운 지식들을 소개하는데 상당한 공을 들였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漢城旬報》의 구성적 특징의 연원을 밝혀보고자 한다.

### 1. 《漢城旬報》의 외국 기사 편중성과 국내적 배경

《漢城旬報》를 구성하고 있는 내국 기사와 외국 기사의 분량을 비교해 보면, 압도적으로 외국 기사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갑신정변의 여파로 1884년에 《漢城旬報》가 폐간되고 2년 후인 1886년에 복간된 《漢城周報》는 순보에 비해 국내 기사의 건수는 늘어났지만, 지면상의 분량은 순보와 비교하여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순보와 비교하였을 때 주보에서는 ‘私議’라는 국내 필진의 논설문이 추가되었다는 점과 한글 기사가 등장했다는 점은 괄목할만한 부분이지만, 국내 기사(內國記事)의 내용은 조정에 올라오는 狀啓, 草記, 그리고 諭旨와 勅令의 告示 등 정무와 관련된 소식으로, 전통적인 朝報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sup>14)</sup> 그에 비해 개항 이후 구미 세계와의 직간접적 접촉과 수호 조약 등을 통해 점진

14) 승정원에서 발행하던 朝報와 《漢城旬報》 국내기사 사이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박정규, 1991, 〈朝報와 漢城旬報의 관계에 대한 考察〉, 《社會科學論叢》 弟10輯, 187-204.

적으로 확장되어가던 세계관에 발맞춘 국외 기사들은 각종 분야를 망라하며 다양하게 수록되었다. 이러한 외국 기사에 편중된 구성을 취하게 된 배경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당시 조선 정부의 신문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실무를 맡았던 정부 내 관료들의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신문(新聞)이라는 매체에 대한 조선 정부의 명시적인 언급을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이른 기록은 1867년 청의 예부(禮部)로부터 온 자문(咨文)에 관한 실록의 기록이다. 그 내용은 프랑스와의 군사적 충돌이 끝난 직후의 상황에서 청의 총리각국사무아문은 프랑스의 동향 및 일본의 조선 침공의 의도에 대해 신문을 초록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음을 의정부에서 보고하는 것이었다.<sup>15)</sup> 이 때 청으로부터 입수한 신문 지면상의 정보는 그로부터 9년 후 운요호 사건 조선 측 전권대관(全權大官) 신헌(申櫛)과 일본 측 전권변리대신(全權辦理大臣) 구로다 기요타카(黒田清隆) 간의 협상 과정에서 다시 등장했다. 구로다가 7여 년간 사신을 거부하고 서계(書契) 또한 동래부에서 받아주지 않은 이유를 묻자, 신헌은 1867년 중국 예부로부터 받은 일본 신문을 근거로 하여 대응하였던 것이다. 그는 그 신문에 ‘5년마다 반드시 에도(江戶)에 가서 대군(大君)을 배알하고 공물(貢物)을 바치는 것이 옛 규례였는데, 조선 국왕이 오랫동안 이 규례를 폐하였기에 군사를 동원하여 그 죄를 추궁 한다’는 내용이 있었음을 들어 일본이 먼저 신의를 저버렸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일본 신문 외에도 상하이에서 간행되고 있던 《萬國公報》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음을 추가로 지적하였다.<sup>16)</sup>

15) 《高宗實錄》 1867년 3월 7일. 議政府啓: 卽見中國禮部咨文, 則準總理各國事務衙門咨稱, 具奏查閱新聞紙云, 法國主因其提督攻打朝鮮, 不甚喜悅, 令其兵船隊停兵. 竝怪該國提督做事粗魯, 不應驟舉干戈. 又云, 法國要先與朝鮮講和, 不等英、美同行. 又云, 日本現有火輪軍艦八十餘艘, 有興師往討朝鮮之志. 又云, 開春和暖之時, 不但法國進兵, 日本亦欲進兵等語.

16) 《高宗實錄》 1876년 1월 19일. 日本全權曰: “不接使臣, 不受書契, 至於六七年之久, 是何故耶? 願聞其由.” 大官曰, “往在丁卯, 中國送來新聞紙有曰, 貴國人八戶順叔所送新聞紙, ‘朝鮮王, 每五年, 必至江戶, 拜謁大君而獻貢, 卽古例也. 朝鮮王廢此例久, 故發兵責其罪’云. 此後敝邦朝野, 莫不以貴國厚誣我邦. 又於萬國公報中有曰,

이상 거론된 1867년과 1876년의 실록 기록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 서양 세력과의 본격적인 조우가 이루어지던 시점부터 동아시아는 외교 관계에 있어 각국의 매체를 통한 정보 수집과 입장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1874부터 발간을 시작한 청의 《萬國公報》를 신헌이 인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 1870년대 중반부터는 청에서 발간되던 정기간행물들이 조선에서 읽히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조선 정부가 매체로서의 신문의 기능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된 배경은, 각국의 의도와 사정을 파악하는 정보 수집 활동 가운데 이루어 졌던 것이다. 《漢城旬報》의 창간사에 해당하는 〈旬報序〉에서도 외국 소식을 전하는 것과 더불어 국내 사정을 실어 여러 나라에 배포하는 목적을 명시하고 있는 것을 봐도 조선 정부가 신문을 발간할 때 이를 외교적 필요의 일환으로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17)</sup> 그리고 그러한 필요는 《漢城旬報》를 발간하기 10여년 전부터 외국 신문이나 잡지 등을 수집하는 동기로 작용하였다. 이렇게 다년 간 수집한 신문과 잡지들은 결국 《漢城旬報》를 구성함에 있어 풍부한 외국기사들을 수록할 수 있게 한 바탕으로 기능하였다.<sup>18)</sup>

이러한 정부의 신문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살펴보아야 할 것이 바로 실무 담당자들의 인식이다. 《漢城旬報》라는 매체를 기획함에 있어 초기의 실무적 준비를 한 인물들은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의 개혁과 변화를 체험하고 돌아온 유길준과 박영효였다. 또한 이들의 기획을 도운 인물이 1880년대 메이지 일본의 사상적 거물이었던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였으며, 신문 발간 작업을 도운 외국인 고문들 역시 후쿠자와의 제자들이었다는 사실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바이다. 특히 그 중 발간

---

包茅不入，故貴國欲攻我邦。包茅不入，即齊桓之爲周室，責讓楚子之言，則復乖引喻之義。此實爲阻書之一大根由也。今此講好之地，不必追提往事也。”

17) 《漢城旬報》，1호 〈旬報序〉.

18) 신헌이 언급한 《萬國公報》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1875년에 북경에서 발간된 《中西聞見錄》과 더불어 학술기사의 대표적인 원 출처로 활용되었다.



작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이노우에 가쿠고로(井上角五郎)는 후쿠자와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조선에서의 활동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sup>19)</sup> 이러한 사실로 인해 《漢城旬報》가 일본 매체, 특히 후쿠자와가 1882년에 창간한 《時事新報》의 영향을 상당히 받았을 것이라는 추정이 자주 제기되었다.<sup>20)</sup> 그러나 이러한 정황들과 달리, 1883년 10월에 발간되어 배포된 《漢城旬報》는 실제로 인용 보도에 일부 활용하기도 한 당대의 대표적인 일본 신문들과 비교하였을 때 외연과 구성에 있어 서로 공통점을 찾기 힘들다. 《時事新報》의 구성은 호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1882년 창간호부터 100호까지의 구성을 검토해 본 결과 크게 다음과 같은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漢城旬報》와 《時事新報》의 구성 비교

《漢城旬報》, 1883년 발간	《時事新報》 <sup>21)</sup> , 1882년 발간
-內國近事 (관령, 조정의 소식. 조선의 朝報 발 취 수록)	-官令, 敍任賞勳(조정 내 동향)
-國內私報 (국내 소식)	-時事新報(정치 논설)
-市直探報 (각종 물품의 물가)	-雜報(국내 소식)
-各國近事 1. 국외 소식 2. 학술/논설 기사	-海外新報(국외 소식)
	-熙朝風雅(문학 투고)
	-漫言(수필 투고)
	-農工業通信(농업, 공업과 관련된 소 식)
	-奇書(기타 기고문)
	-物價(물가)
	-廣告(광고)

19) 채백, 1990, <한국 근대 신문 형성과정에 있어 일본의 역할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72-73쪽.

20) 《漢城旬報》에 대한 일본의 영향을 강조한 논저로는, 채백, 1990, *ibid*, 60-89쪽, 손석춘, 2005, 《한국 공론장의 구조 변동》, 커뮤니케이션북스, 38-40쪽.

이렇듯 두 신문은 일부 비슷한 취지의 항목들을 공유하고 있기도 하지만, 세부 구성을 비교해보면 아예 다른 종류의 매체임이 드러난다. 일본은 1877년의 세이난 전쟁(西南戰爭) 이후로 각각의 정파적 입장을 대변하는 신문들이 특정한 정치적 관점들을 표방하며 경쟁하는 ‘정당신문시대’에 접어들었으며, 후쿠자와의 《時事新報》 역시 그 중 하나였다.<sup>22)</sup> 반면 《漢城旬報》는 관련 매체였고, 특정한 정론 대변에 방점을 두는 일본식 ‘대신문’과는 거리가 멀었으며, 국외 소식 및 새로운 지식 유통을 주목적으로 하는 잡지적 성격이 강했다.<sup>23)</sup> 그러므로 《漢城旬報》의 발간을 기획한 초기 인적 네트워크가 후쿠자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과는 별개로, 《漢城旬報》가 《時事新報》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기존의 통념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漢城旬報》가 주로 국외 소식과 새로운 지식의 보급에 무게를 두는 구성을 갖춘 데에는 〈旬報序〉에서 명시한대로 독자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동시에 당대 조선 사회의 현실적인 여건도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sup>24)</sup> 박영효와 더불어 《漢城旬報》의 기획 단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유길준이 쓴 〈新聞創刊辭〉에서 그 일면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새로 발간할 신문에 국내 기사가 소략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다. 첫째, 문명이 미개한 나라에는 기재할 만한 일이 자연히 적을 수밖에 없고, 둘째, 국내 교통과 운수가 용이하지 못하

21) 《時事新報》는 복간판 《時事新報》, 1986, 龍溪書舍 참조.

22) 春原昭彦, 1990, 《日本新聞通史》, 新泉社, 38-42쪽.

23) 《漢城旬報》에 대해 이를 신문으로 규정할 것인가, 잡지로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논쟁의 대상이 된 바 있다. 정진석, 1997, 〈《漢城旬報》의 잡지 논쟁〉, 《出版學研究》, 429-431 참조. 그러나 ‘잡지’와 ‘신문’에 대한 현대의 개념 구분 요건들에 따라 굳이 《漢城旬報》를 어느 한 쪽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漢城旬報》가 가지고 있는 여러 특징들을 왜곡할 위험이 따른다. 이에 본고에서는 당대 사람들이 《漢城旬報》를 ‘新聞’으로 불렀으므로 신문이라는 용어를 따르되, 19세기 동아시아 매체사의 발달 속에서 그 정체성의 일단을 찾고자 한다.

24) 《漢城旬報》1호, 〈旬報序〉. “이름을 旬報라 하여 見聞을 넓히고, 여러 가지 의문을 풀어주고, 商利에도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니, 중국과 서양의 官報와 新報를 받아보는 것도 그러한 뜻에서 비롯된 것이다.”

며, 마지막으로 어떤 사건과 사실에 대해 공명정대하게 말하는 것을 꺼리고 공연히 비밀로 하는 풍습이 널리 퍼져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25)</sup>

유길준이 이 글을 작성한 시점은 최소한 1883년 1월에 신문 발간을 허락한 고종의 명령이 내려진 이후였을 것이다. 이때는 유길준이 조사시찰단의 수행원으로 일본에 건너가 후쿠자와 유키치가 세운 게이오 기주쿠(京應義塾)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온 직후의 시점으로, 후쿠자와의 문명관에 경도된 모습이 글의 도처에서 나타난다. 조선을 가리켜 ‘文明이 미개한 나라’라는 규정적 진단을 내린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미비한 교통과 더불어 사건 및 사실을 감추고자 하는 관습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현실적인 지적은 눈여겨 볼만 하다. 이러한 지적을 통해 당시 신문 창간을 기획하고 있던 유길준은 조선 사회에서 신문이라는 매체의 기능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음을 토로했다.

같은 글에서 유길준은 이른바 ‘문명국들’에서 신문이 기능하는 바를 서술하면서, 신문에 국내외의 사정을 실음으로써 人民이 정치의 득실을 판별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부는 신문을 통해 민심의 향배를 관찰하고 정치를 적실하게 개량하는 데에 이른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기계나 기구를 만드는 법과 그 편리함은 물론, 농업, 공업, 상업의 업무에 관계된 일도 보도하여 생산력을 높이는 실용적 측면도 거론하고 있다.<sup>26)</sup> 이러한 유길준의 신문 이해는 일본 유학 기간 동안 동경에서 목격하였을

---

25) 兪吉濬, 1971, 〈新聞創刊辭〉, 《兪吉濬全書IV 政治經濟編》, 一潮閣. “이 신문에 기재하는 조항들 중 內國雜報 란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내 조야의 사정을 듣고 상세한 전말을 보도하는 것이 신문의 당연한 본령이긴 하나, 時運이 문명화 된 경지에 이르지 못하고 人心이 활발하지 못하여 국내의 사정을 들어 아는 일이 어렵기 그지없다. 또한 기재할 조목이 매우 적어 지면에 충분한 것은 외국의 사정뿐이다. 대저 문명이 미개한 나라는 기재할 것이 당연히 적고, 교통과 운수가 불편하기 때문에 국내 사정을 깊이 알기가 매우 어렵다. 더하여, 정확한 사실을 공연히 비밀시하는 폐습이 나라 전체에 유행하므로, 설령 사건을 기록할 자가 있더라도 그에 대해 들을만한 곳이 없다. 이는 국가의 立運을 위해서도 심히 탄식할 일이다 ... (중략)”

26) 兪吉濬, 1971, *ibid.*

정론적 대신문들로부터 기인한 것이 확실하며, 열거한 여러 기능들은 비슷한 시기 후쿠자와 유키치가 발간한 《時事新報》와 같은 정론지의 특징에 가깝다. 그는 신문이라는 매체를 지식 전달을 통한 인민의 계몽 수단으로 인식한 동시에 정치 개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공론장으로도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앞서 열거한 이유로 인해 국내의 사정을 자세히 실을 수 없었으며, 현실적 어려움들로 인해 당장의 신문 발간 단계에서는 본인이 꿈꾼 이상적인 매체를 만들 수는 없는 일이었다.

유길준은 박영효가 1883년 3월 10일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신병을 이유로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의 주사(主事)직을 사임하였다.<sup>27)</sup> 그에 따라 신문과 관련하여 그가 계획했던 일체의 문건 또한 채택되지 못한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결국 창간 단계에 이르러 주된 업무를 맡은 박문국은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산하의 기관이었으며, 신문 편집을 맡은 박문국의 주사들이 비준을 받을 독판(督辦)들은 대체로 친청(親淸) 노선의 인물들이었다.<sup>28)</sup> 문명론에 경도되다시피 한 유길준의 창간사는 그보다 훨씬 온건한 서문으로 대체되었으며, 국한문 혼용체를 사용하고자 했던 그의 계획과는 달리 《漢城旬報》는 순한문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지면 구성은 유길준이 예견한 대로 국외기사에 치중된 형태로 발간되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문 간행이 가능했던 것은 유길준이 언급하는 바와 같이 외국사정(外國事情), 즉 국외의 소식과 정세, 그리고 새로운 지식 정보에 대해서는 지면을 채울만한 기사원의 충분한 집적이 어느 정도 완비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漢城旬報》의 기획은 조선에서 최초로 시도된 신문 발간 프로젝트였

27) 《承政院日記》, 高宗 20년 3월 10일.

28) 1880년대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독판들의 성향에 대해서는: 한실비, 2014, 〈漢城旬報의 淸佛戰爭 보도에 나타난 개화지식인의 대외인식〉, 단국대학교 석사논문, 7-8쪽.

던 만큼, 《漢城旬報》의 편집진들이 실제로 신문을 제작하면서 모든 구성을 독창적으로 기획했을 리는 만무하며, 전체적인 틀을 잡아 나가면서는 당대 동아시아에서 유통되고 있던 여러 종류의 매체들을 참고하였을 것이다. 실제로 신문의 기획 단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유길준은 신문 창간사에서 ‘신문의 구성에 있어서는 규모(規模)가 있어야 한다’고 하여 본보기가 될 만한 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sup>29)</sup> 이와 같은 유길준의 언급은 앞으로 발간할 신문을 기획함에 있어 전범으로 참고할 매체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그러므로 《漢城旬報》가 다루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지식과 정보들은 물론, 신문 자체의 외연적, 구성적 특징 또한 인접한 국가들의 매체 발달 양상과 무관할 수 없었을 것이다.

## 2. 19세기 중국 정기간행물의 영향

《漢城旬報》의 외국기사는 국제 정세에 관한 소식 기사들과는 별개로, 세계 각국의 인문, 자연지리와 서양의 학술적, 기술적 성과들에 대해 선교사들이 생산 혹은 번역한 새로운 지식들을 학술기사의 형태로 실고 있다. 한 호에 소식기사와 학술 기사를 함께 실은 구성은 아편전쟁을 기점으로 남중국으로부터 출발하여 선교사들이 활동하던 주요 거점 도시들을 중심으로 확산된 잡지 형태의 정기간행물들의 전형적인 특징과 일치한다. 더하여 《漢城旬報》에 수록된 학술기사들은 그러한 선교사들의 정기간행물들로부터 인용, 재구성한 기사들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19세기 중반부터 본격화된 중국 내의 정기간행물 간행 양상과 1883년 조선에서 발간된 《漢城旬報》 사이에 계기적 연결 고리를 시사한다.

---

29) 兪吉濬, 1971, *ibid.*

19세기 중국에서 활동한 개신교 선교사들은 서양의 학술적, 기술적 성과를 중국 지식인들에게 알리기 위한 지식의 생산자이자 보급자의 역할을 자임했다. 이는 17세기 예수회 선교사들이 청에서 활동할 때 취한 선교 전략과 유사하지만, 중국 지식사회에 미친 영향은 훨씬 깊고 넓었다. 실용적인 지식의 생산과 보급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려는 선교사들의 활동은 양무운동을 주도한 청조의 한족 관료들 및 그와 이해관계가 합치한 지식인들과의 협력으로 더욱 빛을 발했다.<sup>30)</sup> 이에 따라 19세기 중반 들어 중국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서양 문헌들이 선교사들과 현지 지식인들의 협업을 통해 번역되었고, 한역된 지식들은 학술서와 정기간행물의 형태로 인접 국가들에까지 전해진 결과 중국을 넘어 한자문화권 국가들의 지적 토양에도 영향을 미쳤다.

중문(中文)출판물의 발간을 통한 문자(文字)선교<sup>31)</sup>의 영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사례로는 조선의 《漢城旬報》와 《漢城周報》에 담긴 학술 기사들을 가장 먼저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 선교사들의 저술이나 정기 간행물로부터 필요한 글들을 초(抄)해둔 규장각 서적들도 그러한 예에 속한다.<sup>32)</sup> 일본의 경우,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서양 서적들에 대한 역해(譯解)본과 주해(註解)본을 편찬하여 적극적으로 지식 사회에 유통하였다. 학술서적의 번역 못지않게 지식의 보급과 확산 측면에 있어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정기간행물의 발행이었다. 정기간행물은 오늘날의 일간신문과 비슷한 역할을 한 소식지들과, 좀 더 많은 분량의 지식과 정보를 다루는 종합잡지와 전문잡지들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申報》나 《中外新報》와 같이 중국 내외에서 일어난 사건 전달과 광

30) 중국에 진출한 19세기 선교사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Elman, Benjamin, 2005, *On Their Own Terms*, Harvard University Press, 281-354쪽 참조.

31) 차배근, 2008, 《중국근대언론발달사 1815-1945》, 서울대학교출판부, 22-23쪽.

32) 중국 선교사들이 편찬한 한역서학서나 발간한 정기간행물들에 대한 초략본으로 는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萬國公報》-奎中4388, 《中西見聞錄》-奎7880, 《機器火輪船源流考》-古8000-1이 있다.

고를 목적으로 하는 신문으로, 본격적인 서양식 언론문물이 개항장들에 정착된 1850년대 말부터 출현하기 시작하였다.<sup>33)</sup> 반면 서양 지식과 학술적 성과들을 주로 실은 종합잡지는 19세기 초반부터 출현하여 소식지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고유의 역할을 19세기 내내 지속하였다.

정기간행물의 발행은 대량 생산이 가능한 인쇄소와 고급 인력, 그리고 충분한 수요가 보장된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특히 서양의 지식과 학문을 전달하는 종합잡지나 전문잡지의 경우, 소식지와는 달리 월간지로 발간되는 대신, 소식지의 수배에 달하는 지면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잡지의 발간은 앞서 언급한 안정적인 환경과 더불어 풍부한 내용을 구성할 충분한 지식과 정보의 집적, 그리고 중국 지식인 독자층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번역에 있어 필진들의 학문적 노력이 수반되어야만 했다. 그러므로 아편전쟁 이후 185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중국의 새로운 주요 무역항으로 떠오른 상하이가 서학 출판과 각종 정기간행물 발간의 메카로 떠오르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한 지적 활동의 중심에 있던 묵해서관(墨海書館)은 40년대와 50년대 내내 수많은 서학서들을 중문으로 번역, 출간하였다. 번역된 서학서의 증가는 곧 번역을 통해 생산된 서양 지식들의 양적 팽창과 질적 도약을 동시에 가져왔으며, 이는 달리 말하면 수준 높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여건이 마련되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 결과 묵해서관은 인문지식과 자연과학지식을 망라한 다양한 서적들로 축적된 성과를 보급하기 위해 1857년 1월 《六合叢談》이라는 잡지를 출간하였다.<sup>34)</sup>

《六合叢談》은 묵해서관에서 발행한 여러 서학서들을 발췌, 인용하여

33) 19세기 중반부터 서양인들이 발행한 중국어 신문에 대해서는, 차배근, 2008, 《중국근대언론발달사1815-1945》, 81-104쪽 참조.

34) 〈六合叢談小引〉, 《六合叢談》卷一, 1857. 장간호의 서문인 〈六合叢談小引〉은 정교하고 이익이 되는 서양 과학의 아홉 가지 분야(화학, 지학, 생물학, 천문학, 전기학, 물리학[重學, 流質, 聽視諸學])를 소개하며 서양의 학술적 성과를 보급하고자 하는 의지를 설명하고, 동시에 국외의 주요 사건들에 관한 기사들도 포함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구성하는 체계를 갖추어 지식인들이 번역한 학술서들에 담긴 지식들을 대중적으로 전파하는 정기간행물의 선례가 되었다.<sup>35)</sup> 1870년대 가장 대표적인 정기간행물이었던 《中西聞見錄》(1872년 창간), 《萬國公報》(1874년 창간), 《格致彙編》(1876년 창간) 등은, 《六合叢談》의 지면 구성 방식을 따라 다양한 서학서들로부터 글을 인용하는 형태로 학술 기사를 게재하여 새로운 지식을 중국 사회에 보급하였다. 또한 《六合叢談》의 발간이 지속되던 1858년은 중국 매체사에서 최초의 중문 신문으로 평가받는 《中外新報》가 홍콩에서 창간된 해이기도 하다. 이들은 광고와 뉴스를 기반으로 하는 소식지 형태의 신문으로, 이를 시작으로 하여 상하이에서는 《申報》, 《上海申報》 등의 일간지, 격일간지들이 창간되어 국내외 뉴스들과 광고들을 전달하는 신문매체로 발달하였다. 반면 《六合叢談》과 같이 중국 사회에 서양 지식을 보급하는 데에 큰 일조를 해온 잡지 형태의 정기간행물들은 꾸준히 그 명맥을 이어간 결과, 1870년대에 들어서면서 화북 지역으로 진출하였다. 1872년, 미국 선교사 丁韞良(W. A. P. Martin)과 영국 선교사 艾約瑟(J. Edkins)이 청나라 수도 북경에서 간행된 최초의 중문잡지 《中西聞見錄(The Peking Magazine)》의 발간은 그 신호탄에 해당했다.

《中西聞見錄》은 구성상 《六合叢談》과 크게 차이는 없으나, 과학 지식의 보급에 더욱 높은 비중을 둔 잡지였다. 월간지였던 이 잡지는 북경의 廣學會(Society for the Diffusion of Useful Knowledge in China)의 지원 하에 서양을 비롯한 국외 소식들과 함께 천문, 지리, 격물과 관련한 기사들을 함께 실어서 1875년 8월 폐간되기까지 총 36호가 발행되었다.<sup>36)</sup> 《中西聞見錄》 서문에서 편집진은 가경(嘉慶)년간에 우두벌이 광둥지방에서 수많은 인명을 살렸던 예를 들며 서구의 여러 성취들이 중국

35) 《六合叢談》은 《談天》, 《重學》 등의 한역서학서로부터도 다수의 인용 게재를 통해 기사를 구성하고 있다.

36) Elman, 2005, *ibid*, 311쪽.



인들에게 얼마나 유익한 가를 적극적으로 설파하고, 서양 여러 나라의 제조 기술과 기구, 하방(河防)법 등과 더불어 고금의 역사적 변천 등을 내용으로 구성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sup>37)</sup> 실제 지면 구성도 천문학, 지리학, 물리학, 화학, 의학, 그리고 기타 철도, 광산, 전보 등의 과학기술 지식을 다룬 논설들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는 몇 호에 걸친 고정 연재의 형태로 기사가 구성되어 있다. 당시 중국내 양무운동을 이끌었던 이홍장(李鴻章)과 자강운동과 관료들이 겨냥하던 개혁 노선을 선교사들이 지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이러한 잡지의 출간에 있어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sup>38)</sup>

《中西聞見錄》은 1861년에 건립된 청의 관립 외국어 학교 동문관(同文館)에서 교재로 채택되어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만큼 그 내용과 구성이 탄탄하고, 서양 과학의 다양한 분야들을 망라한 논설들과 세계정세에 대한 기사들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六合叢談》에서까지도 일부 남아있던 개신교 교리의 색채가 《中西聞見錄》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사라졌다는 점도 중요한 변화였다. 요컨대 강남 지방으로부터 출발하여 1870년대에 북경까지 진출한 서양 선교사들의 정기간행물은 점점 그 내용 구성에 있어 종교적 색채를 소거해갔으며, 그 결과 청 정부가 정책적으로 세운 관립 학교와의 연계 속에서 간행되는 정기간행물이 북경에서 간행될 수 있게 된 것이다.<sup>39)</sup>

《中西聞見錄》과 함께 1870년대를 대표하는 또 다른 정기간행물로 1874년 상하이에서 발간된 《萬國公報》를 들 수 있다. 《萬國公報》는

37) 〈中西聞見錄序〉, 《中西聞見錄》 第一號, 1872.

38) Elman의 분석에 따르면, 《中西聞見錄》에 수록된 서양 선교사들과 무역업자들, 그리고 외교관들이 쓴 361개의 논설 중 약 44%(166개)가 과학과 기술에 대해 다룬 기사들이었다고 한다. Elman, 2005, ibid, 311쪽. 세계지리에 관한 기사들은 ‘地學指略’이라는 소분류로 1호부터 4호에 걸쳐 연재되었다. 이 地學指略의 기사들은 《漢城旬報》 창간호에 등장하는 지리 기사들에 상당 부분 활용되었다. 서구의 치수 기술에 대한 기사들은 ‘泰西河防’ 소분류로 1호부터 3호에 걸쳐 연재되었다.

39) Elman, 2005, ibid, 311쪽.

본래 기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미국 감리회 선교사 林樂知(Young J. Allen)에 의해 1868년에 창간된 《中國教會新報》의 후신이다. 편집진은 교회신보 301호부터 제호를 《萬國公報》(영문제호: The Globe Magazine)로 바꾸고, 영문 부제를 통해 서구의 지리, 역사, 문명, 정치, 종교, 과학, 예술, 공업 등에 관한 지식을 확산시키고자 한다는 잡지 창간의 목적을 명시하였다.<sup>40)</sup> 취지에 걸맞게 《萬國公報》는 중국내 서양 선교사들이 발간한 정기간행물들과 번역된 서양서들에 담긴 여러 글들을 인용하여 지식 보급에 힘을 썼다. 그 과정에서 같은 시기 북경에서 큰 성공을 거둔 《中西聞見錄》의 학술기사들을 적극적으로 인용하여 지면을 구성하였다.

《萬國公報》는 여타의 정기간행물들보다도 《漢城旬報》와 더욱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 《萬國公報》의 구성상 특징을 살펴보면, 비슷한 시기에 발간된 그 어느 정기간행물들보다도 《漢城旬報》와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두 신문의 구성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

40) 《萬國公報》의 영문 부제는: “Devoted to the Extension of Knowledge Relating to Geography, History, Civilization, Politics, Religion, Science, Art, Industry and General Progress of Western Countries. 《萬國公報》, 1874, 林華書院, Harvard-Yenching Institute 소장본.

〈표 2〉 《萬國公報》와 《漢城旬報》의 구성 비교

《萬國公報》 (1874-1883) <sup>41)</sup>	《漢城旬報》 (1883-1884)
-京報 (淸朝 관보를 발췌 수록) -大靑國事 (국내 소식) -各國近事 1.(세계 각 나라별 새로운 소식) 2.학술기사	-內國近事 (朝報 발췌 수록) -國內私報 (국내 소식) -市直探報 (각종 물품의 물가) -各國近事 1.국외 소식 2.학술기사

〈표 2〉에서 정리된 바와 같이 두 매체의 기사 분류상 구성은 거의 흡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萬國公報》의 ‘京報’는 《漢城旬報》의 ‘內國近事’와 같이 조정에서 발간하는 관보(淸은 京報, 조선은 朝報)를 출처로 하여 조정 소식을 전했다. 또한 《萬國公報》의 ‘大靑國事’와 《漢城旬報》의 ‘國內私報’는 둘 다 소략하게나마 국내 소식을 다루고 있다. 《萬國公報》에는 없지만 《漢城旬報》에는 등장하는 ‘市直探報’는 품목별 물가를 간단하게 표로 정리하여 제공하는 란으로, 큰 틀에서 볼 때 국내 소식의 소항목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漢城旬報》 지면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各國近事’는 세계 여러 나라의 소식들에 대한 기사와 더불어 지식 보급을 위한 학술기사들과 논설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萬國公報》 또한 기사 구성이 그와 정확히 일치한다. 또한 학술기사의 경우 두 매체 모두 《中西聞見錄》으로부터 상당수의 과학기술 기사들을 인용하여 구성하고 있다는 점도 특이한 지점이다. 이것은 그만큼

41) 《萬國公報》의 지면 구성은 《靑末民初報刊叢書-影印教會新報萬國公報》, 1968, 華文書局股份有限公司참조. 내국 기사를 다룬 京報를 제외하고는 《漢城旬報》와 달리 일정한 난분류를 두지 않고 국가별 소식과 학술/논설 기사들이 순서에 상관 없이 배치되어 있다.

《中西聞見錄》이 중국과 조선에서 학술적으로 신뢰할만한 서양 지식의 원천으로 여겨졌음을 시사한다. 또한 두 매체 모두 학술기사를 구성하는 방법에 있어 당대의 학술잡지와 학술서로부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글들을 발췌, 인용하는 전략을 활용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sup>42)</sup>

《萬國公報》는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지속된 잡지형 정기간행물의 명맥을 잇는 매체였다. 1872년 북경으로까지 북상한 《中西聞見錄》이 과학 분야에 비중을 둔 전문잡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면, 1874년 상하이에서 발간된 《萬國公報》는 분야에 상관없이 훨씬 다양한 지식들을 풍부하게 담아내는 종합잡지의 면모를 띠었다. 그런데 《漢城旬報》와 관련하여 특히 《萬國公報》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漢城旬報》와 마찬가지로 《萬國公報》 역시 京報를 인용하여 조정의 소식을 전면에 배치했다는 사실이다.<sup>43)</sup> 조정에서 발행하는 관보를 인용하여 전면에 배치하는 구성은 당시 중국에서 선교사들이 간행하던 지식잡지 형태의 정기간행물들이 채택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오히려 상하이의 《申報》나 홍콩의 《香港華字日報》와 같은 일간 신문들이 국내 뉴스를 다루기 위해 주로 인용하던 방식이었다. 반면 스무 쪽이 넘는 지면에 다방면의 서양 지식들을 담은 학술기사들을 전재하는 체제는 전형적인 잡지의 구성 방식이다. 《漢城旬報》가 발간된 1883년 이전에 청에서 발간된 주요 정기간행물들 중 이러한 두 가지 특징을 갖는 매체는 《萬國公報》가 거의 유일하다. 그런데 조선의 《漢城旬報》가 이와 같이 독특한 《萬國公報》의 지면 구성과 동일한 체계를 갖췄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漢城旬報》의 기획자들은 《萬國公報》의 지면 구성을 유력한 전범으로 삼았던

42) 《萬國公報》는 주간으로 1874년부터 1883년까지 발간되었으며, 그 전신이었던 중국 교회 신보가 약 6년간 300호가 발간되었다. 1883년 정간 이후 1889년에 다시 발간을 시작하였는데, 본고에서는 《漢城旬報》와의 비교를 위해 1874년부터 1883년 사이에 발간된 《萬國公報》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43) 《萬國公報》의 전신인 《教會新報》에서도 京報는 찾아볼 수 없으며, 전면은 삽화와 함께 기독교 교리에 대한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教會新報》, 1868-1874, 林華書院, Harvard-Yenching Institute 소장본.

것으로 보인다.

《萬國公報》에 관하여 더욱 주목해야 할 지점은, 《萬國公報》에 실린 학술기사들의 인용 방식에 있다. 《萬國公報》는 전신인 교회신보의 부수까지 더하여 총 750호를 주간으로 발간하였고, 그 안에 실린 학술기사의 양도 당대 청에서 발간되던 그 어떤 정기간행물들보다도 풍부했다. 이러한 《萬國公報》의 방대한 학술기사들은 다름 아닌 청에서 출판되던 수많은 한역서학서와 정기간행물로부터 발췌하여 실은 것들이었다.<sup>44)</sup> 요컨대 《萬國公報》의 학술기사들은 19세기 중, 후반에 청에서 간행된 서학서들의 집대성을 방불케 했고, 매체의 형태로 서양 지식을 청의 지식인들에게 보급하는 가장 유력한 매체였던 것이다.<sup>45)</sup> 《漢城旬報》가 《萬國公報》로부터 직접적으로 많은 학술 기사들을 인용한 연유도 이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볼 때 1883년에 창간된 《漢城旬報》는 1874년부터 1883년까지 10여 년간 상하이에서 발간된 《萬國公報》로부터 그 구성과 내용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해 보인다. 물론 《萬國公報》와 달리 《漢城旬報》는 정부의 관편 매체라는 차이가 있지만, 그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漢城旬報》는 서양 선교사가 발간한 《萬國公報》의 지면 구성 방식을 거의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또한 《漢城旬報》는 《萬國公報》가 그러했듯 중국내 서양 선교사들이 번역한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지식들을 적극적으로 인용하여 학술기사를 구성하고 있다. 그 결과 청의 매체들에서 인용과 재인용을 거듭하며 유통되던 지식들이 조선 사회에도 보급됨으로써 같은 시기 중국 지식사회의 주요 의제

---

44) 《萬國公報》와 그 전신인 교회신보가 학술기사를 구성함에 있어 활용한 한역서학서들은 熊月之, 2011, 《西學東漸与晚清社會》, 中國人民大學出版社, 309-311쪽 참조.

45) 웅월지는 19세기 후반 중국에서 서학 지식을 소개한 매체들 중 가장 영향력 있는 것으로 《中西聞見錄》의 후신인 《格致彙編》과 함께 《萬國公報》를 꼽았다. 熊月之, 2011, *ibid*, 308쪽.

들을 공유하게 되었다.<sup>46)</sup> 요컨대 《漢城旬報》는 서양의 개신교 선교사들이 19세기 초반부터 편찬해 온 종합잡지의 전통과 긴밀한 연관 속에서 탄생한 매체로 볼 수 있으며, 창간되던 1883년 당시로서는 그러한 전통의 최종적인 귀결로 평가되는 《萬國公報》의 구성 방식을 전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

46) 인용과 재구성의 방식으로 게재된 《漢城旬報》의 학술기사들에 대한 분석은 본 논문 2장 참조.

## 二. 《漢城旬報》의 학술기사 재구성 양상

《漢城旬報》는 창간사에서 발간 목적을 ‘세계정세에 대한 지식과 정보들을 모아 실어서(摭實備載) 이를 비추어보아 살필 수 있게 하고, 그 사이에 포폄권징(褒貶勸懲)의 의(義)도 들어있도록 한다’고 밝히고 있다.<sup>47)</sup> 이 문장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새로운 지식과 정보들에 대해 ‘포폄’과 ‘권징’이라는 도덕적 가치 판단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점이다. 도덕과 학문의 최고 주재자를 자임했던 조선 정부가 확장된 세계에 대한 지식과 정보들을 취사선택하여 신문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포폄과 권징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외국에 대한 지식정보들을 담는 과정에서 조선 정부의 가치 판단이 개입되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단순히 새로운 것을 알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도덕 판단의 의미를 담아 새로운 지식의 허용과 불허의 기준을 제공하겠다는 함의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요컨대 《漢城旬報》에 담긴 새로운 지식들에는 1880년대 당시 조선의 지식사회에 있어 조선 정부가 허용 가능한 새로운 지식의 범위와 기준과 그에 대한 입장이 간접적으로 담겨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창간사에서 천명한대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담은 외국기사들은 ‘各國近事’라는 분류 하에 《漢城旬報》 전체 기사 중 73.2%라는 압도적인 다수를 점하고 있다.<sup>48)</sup> 외국기사들은 크게 국제 소식을 전하는 소식 기사들과, 서구 열강들의 지리, 제도, 역사 및 학술적, 기술적 성과 등 다양

47) 《漢城旬報》, 1호 〈旬報序〉, “摭實備載可以燭照鏡考而褒貶勸懲之義未嘗不行乎其間也.”

48) 한보람, 2005, *ibid*, 114쪽.

한 주제에 걸친 학술기사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두 종류의 기사는 같은 분류 하에 위치하지만, 기사를 편집한 필진들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둘은 구별될 필요가 있다. 세계정세 파악을 위한 일반 소식 기사들은 일어난 사건 그 자체를 전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그러므로 세계 각처의 주요 소식들을 인용하여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선별의 고민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지식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서양의 학문적 성과들을 소개하는 학술기사들의 집필에 있어서는 소식 기사들을 인용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고민이 발생했을 것이다. 축적된 지식의 현황을 살펴 학술기사에 실을 내용에 대한 선택과 배제의 가치 판단이 수반되어야 했을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수정과 재구성도 필요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몇몇 학술기사들의 경우 필진들의 독자적인 평가가 담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출처들을 바탕으로 기사를 재구성한 사례도 있다.<sup>49)</sup> 이렇듯 소식 기사들과 달리 필진들의 구성상 고민이 절실하게 개입되어 있는 학술기사들의 존재로 말미암아 《漢城旬報》는 지식 구성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

49) 《漢城旬報》 학술기사들에는 청의 매체들로부터 인용한 논설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논설의 화자는 대부분 중국인 혹은 중국에서 활동하던 유럽과 미국의 선교사들이었고, 다룬 내용 역시 중국이 당면한 상황 및 과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주된 주제였다. 지면에 실을 기사들을 선별하는 편집의 과정은 조선 정부의 관료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외국의 매체들로부터 특정 기사들을 선정하여 실은 사실을 통해서 그 의도에 대한 간접적 단서를 얻을 수는 있다. 그러나 논설 기사들의 주장을 마치 편집을 담당할 필진의 직접적인 의견, 혹은 조선 조정의 입장과 선불리 등치시키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을 불러올 여지가 크다. 그러므로 《漢城旬報》의 학술기사들에 대한 역사적 해석을 위해서는 필진들의 독창적인 사건과 인용한 부분을 구별하여 인식하여야만 한다.



## 1. 새로운 지식의 축적과 그 경향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 《漢城旬報》는 새로운 지식의 보급을 목표로 한 청의 잡지들과 형태적, 내용적 유사성을 띤 매체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그 원천으로 기능하였을 지식 축적의 현황과 경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새롭게 축적한 지식은 곧 《漢城旬報》의 학술기사들을 구성하는 원천으로 기능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漢城旬報》 학술기사들을 본격적으로 살피기 전에, 그 원천이 되었을 1880년대 조선 정부의 신지식 축적 현황을 각종 서목들과 기록들을 통해 밝혀보고자 한다. 이러한 물음은 단순히 《漢城旬報》에 실린 기사들을 통해 해당 매체의 성격을 밝히는 문제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매체에 실은 외국 정보들은 개항이라는 사건을 촉매로 하여 ‘공법 질서’로 표상된 새로운 국제 질서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 기획된 지적 대응임을 편집 주체인 조선 정부는 명시했다.<sup>50)</sup> 그러므로 《漢城旬報》에 실린 외국 기사들의 원 출처로 기능했을 외국 서적과 신문, 잡지들은 개항으로 촉발된 변화를 조선 정부가 어떻게 인식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사료인 동시에, 19세기 중반 조선 정부가 집적한 새로운 지식정보들의 실체라고 할 수 있다. 지식의 축적이 사상을 수용하는 전제가 되고, 지식의 변화는 사상 변화의 전조가 되어 새로운 사상의 출현을 예비한다는 점에서, 그 실체를 파악하는 것은 ‘開化思想’이라는 이름으로 적극적인 의미가 부여된 일련의 사고의

---

50) 《漢城旬報》 1883년 10월 31일, 〈旬報序〉. “禹는 九鼎을 만들어 九州를 형상하였고 周官에는 國土를 구분하였으나 要服·荒服 이외는 조금도 언급하지 않은 것은, 山川이 막혔고 文物과 制度가 달라서 德이 베풀어지거나 힘이 이르지 않기 때문에 先王들이 먼 곳까지 경략하는데 마음을 쓰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風氣가 점차 열리고 智巧도 날로 발전하여 船舶이 전 세계를 누비고 電線이 서양까지 연결된 데다가 公法을 제정하여 國교를 수립하고, 항만·포구를 축조하여 서로 교역하므로 南北極·熱帶·寒帶 할 것 없이 이웃 나라와 다름이 없으며, 事變과 物類가 온갖 형태로 나타나고 車服·器用에 있어서도 그 기교가 일만 가지이니, 世務에 마음을 둔 사람이라면 몰라서는 안 될 것이다.”

도대를 밝히는 일이기도 하다.<sup>51)</sup>

《漢城旬報》의 발행을 가능하게 한 외국 지식 정보의 집적 현황은 일차적으로 ‘各國近事’라는 이름으로 분류된 외국 기사들 중 스스로 출처를 밝힌 기사들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漢城旬報》의 기사들 중 출처를 밝힌 기사들을 모아 국제정보수집의 현황을 파악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청, 홍콩, 월남, 일본, 인도 등 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신문들은 물론 이거니와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 독일 등 구미 열강들로부터 전해 온 전신과 신문들도 망라하여 인용되고 있다.<sup>52)</sup> 《漢城旬報》의 전체 36호에 실린 기사들 중 압도적으로 많은 기사들은 청의 매체들로부터 인용된 한문 기사들로, 출처를 밝힌 외국기사 1,150건 중 홍콩과 월남을 출처로 한 기사까지 더했을 때는 694개의 기사를 청으로부터 가져온 기사로 볼 수 있다(약 60%).<sup>53)</sup> 이러한 집계는 기사의 개수만을 가지고 계산한 비율인데, 청의 매체에서 인용한 기사들 외에 다른 언어로 발간되던 구미와 일본 매체들로부터 인용한 기사들이 대부분 짧은 단신과 소식 전달 목적의 기사들임을 감안하면 청국발 기사들이 지면에서 차지하는 분량은 60%를 훨씬 뛰어넘음을 알 수 있다.

청의 매체와 서적들에 크게 의존하는 기사 구성의 경향성은 본고에서 주목하는 학술기사들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기사에 출처를 밝힌 학술기사들은 상당수가 《中西聞見錄》이나 《萬國公報》와 같은 청의 매

---

51) 葛兆光 저, 이연승 옮김, 2008, 《사상사를 어떻게 쓸 것인가》, 영남대학교출판부, 90쪽.

52) 한보람은 《漢城旬報》와 《漢城周報》의 외국 기사들 중 출처를 명시하고 있는 기사들을 전부 통계화하여 총체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한보람, 2006, 〈1880년대 조선정부의 개화정책을 위한 국제정보 수집-《漢城周報》의 관련 기사 분석〉, 《震檀學報》 第101號, 291-339. 한보람, 2005, 〈1880년대 조선정부의 개화정책을 위한 국제정보 수집-《漢城旬報》의 관련기사 분석〉, 《震檀學報》 第100號, 109-164.

53) 외국 기사들에 대한 집계는 한보람, 2005, 110-111쪽의 통계를 활용하였다. 다만, ‘論說’란은 오직 6호와 8호에만 있는데, 6호에 9개, 8호에 5개의 기사가 실려 있으므로 합계를 14개로 파악하였다.

체로부터 인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고, 몇몇 한역서학서들의 이름도 등장한다. 학술기사들은 대부분 논설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필요에 따라서는 수치화된 통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세계 각지의 자연지리 및 인문지리, 그리고 산업 현황 등의 정보들도 함께 제공하기도 하였다. 또한 특정한 주제에 관한 기사가 다뤄야 할 분량을 한 호 내에서 소화될 수 없는 경우, 필요에 따라서는 연재의 형태로 몇 호에 걸쳐 긴 글을 수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학술기사들의 편집 양상을 미루어 보건대, 《漢城旬報》의 필진들은 ‘各國近事’란의 외국 기사들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소식 보도 기사들과 학술 기사들을 분명히 분리하여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漢城旬報》 필진들은 창간호에서 ‘地球論’이라는 학술 기사를 실어 지구가 원형인 이유를 논증하는 서양 학자의 견해를 소개하였는데, 기사 말미에 다음과 같은 향후 학술기사 제공 계획을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지구상에 있는 海陸과 山川의 면적과 각국 幅員의 廣狹과 人口의 다소, 種類의 구별, 兵額의 多寡, 政令의 得失, 文學의 盛衰, 風俗의 善惡, 國勢의 強弱, 時世의 治亂, 商務의 奇贏, 工業의 巧拙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말하고 신중히 선택해서 매월 3회씩 同志들에게 전하러 한다. 행여 景濶과 才智를 지닌 선비들이 함께 일어나 이를 토론하고 날로 憤啓한다면, 어찌 다만 健문을 넓히고 지식을 밝히는데 그치겠는가. 소위 하늘에 빌어 永命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히 하여 국가를 오래 보존한다는 것이 장차 가능해서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sup>54)</sup>

매월 3회씩 다양한 분야의 지식들을 선택하여 수록하겠다는 《漢城旬報》 필진들의 계획은 현재 확인 가능한 1호부터 36호까지 빠짐없이 이

54) 《漢城旬報》 1호, 〈地球論〉.

행되었다. 비록 신문 지면의 분류상으로는 ‘各國近事’라는 이름으로 일괄적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실제 신문을 편집한 실무자들은 학술기사와 소식 기사를 별개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두 기사군에 대한 편집 실무진의 인식 차이는 기사의 인용 출처와 인용 방식의 차이로 반영되었다. 일반 소식 보도 기사들의 경우 소식 전달의 신속성을 기할 수 있는 상하이, 홍콩 등 개항장에서 발간되던 일간지들의 소식 기사들과 전신 등을 수정 없이 직접 인용하고 있는 반면, 학술 기사들의 경우 필진들의 사건을 덧붙이거나 복수의 출처로부터 정보를 취합하여 기사를 작성하는 등 재구성을 거쳐 작성된 기사들이 종종 발견된다.<sup>55)</sup>

또한 학술기사의 출처 경향은 조선 정부가 개항 이후 급변하는 국제 정세의 파악과 時務를 위해 정책적으로 수집한 각종 서적들과 자료들의 목록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漢城旬報》의 학술기사들 중에는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기사가 다수 존재하는데, 그중 상당수는 당시 조선정부가 청으로부터 입수한 한역서학서와 정기간행물에 실린 글을 재구성하여 실은 기사임을 알 수 있다.<sup>56)</sup> 그러므로 학술기사들의 출처가 된 한역서학서와 정기간행물의 면모는 비슷한 시기 조선 정부가 새롭게 수집한 각종 정기간행물과 서적들의 목록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개항기 조선 정부의 외국 지식정보 축적을 위한 서적 수집은 기본적으로 청과 일본이라는 두 축을 통해 이루어졌다. 일본에는 1881년 4월 朝士視察團을 파견하여 그들이 보고 들은 일본의 사정들에 대한 문건기와 시찰 보고서를 받았고, 청에는 1882년 영선사로 김윤식을 파견하여 당시 양무운동의 대표적인 성과였던 무기 관련 기술 정보들을 구하도록 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sup>57)</sup> 특히 김윤식은 천진(天津)의 기기창 남국(機器

55) 이러한 재구성의 사례는 다음 절에서 다루고자 한다.

56) 논문 말미의 〈부표 1〉 참조.

57) 장영숙, 2012, 『集玉齋書目』 분석을 통해 본 고종의 개화서적 수집 실상과 활

廠 南局)에서 서양과학서적, 도표, 지도 등을 대거 입수해 왔는데, 그 서적들은 조선 정부가 정책적으로 파견하여 수집해 온 것이라는 점에서 당시 조선정부가 청으로부터 얻고자 한 지식과 정보의 필요에 가장 맞아 있는 것으로 파악해도 무방하다.<sup>58)</sup> 또한 고종의 친정 이후로 규장각의 기능과 위상이 강화되면서 규장각의 도서 색인집 《內閣藏書彙編》이 제작되었는데,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新內下書目》과 《春安堂書目》에는 1882년 1887년 사이에 수집하여 규장각에 하사한 서적들이 기록되어 있다.<sup>59)</sup>

이들 서목과 더불어 충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서목으로 《內下冊子目錄》이 있다. 《內下冊子目錄》 또한 《新內下書目》, 《春安堂書目》과 같이 고종이 하사한 서적들의 목록 중 하나인데, 그 표지에 적힌 ‘甲申’이라는 글자로 미루어 보아 1884년에 만들어진 목록으로 추측된다. 여타 목록들과 마찬가지로 《內下冊子目錄》에는 고종이 규장각에 내린 서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560여종에 이르는 도서 목록 중에는 다양한 한역서학서와 정기간행물이 실려 있다.<sup>60)</sup> 이 목록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목록의 작성 년도인 1884년이 《漢城旬報》의 발행 시기와 일치한다는 점이다. 순보는 1883년 10월에 발행을 시작하여 1884년 12월에 폐간되었으므로 《內下冊子目錄》은 《漢城旬報》가 발간되던 당시 조선 정부의 신지식 수집 현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목록이라고 할 수 있다.<sup>61)</sup>

용>, 《한국근현대사연구》, 제61집, 8쪽.

58) 김윤식이 입수한 서적의 목록은: 金允植, 《陰晴史》, 高宗 19년 4월 26일 條.

59) 《內閣藏書彙編》, K2-4637.

60) 내하책자목록에 수록된 개화서적들에 대해서는 장영숙, 2009, <『內下冊子目錄』을 통해 본 고종의 개화관련 서적 수집 실상과 영향>,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8.

61) 서목들에는 서양을 비롯한 국제 정보와 새로운 지식들을 담고 있는 서적들 외에도 경서와 중국의 역사서 등 전통적 학술서적들이 다수 기록되어 있다. 본고에서 다루는 신지식 수집 현황과는 별도로 개화 정책이라는 키워드에 의해 규정되어 온 이들 목록들에 담긴 전통 서적들의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당시 조선 정부의 학문적 입장과 지향을 균형 있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1882년-1887년 사이에 기록된 이들 목록들에 담긴 서적 중 국제 정세와 서양의 학문, 역사, 정치, 그리고 외국의 제도 등 새로운 지식들을 담고 있는 외국서적들을 주제에 따라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sup>62)</sup>

---

62) 이 서적들을 기존 연구자들은 대부분 ‘개화 서적’, ‘개화를 위한 서적’, ‘서양 관련 서적’이라는 말로 통칭하고 있으나, 그러한 표현이 적실할 지는 의문이다. 새로운 지식 정보의 수집에 대한 필요성의 절실함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그렇게 하여 수집된 책들을 아울러 통칭할 수 있는 적절한 표현으로서 ‘개화 서적’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조선이 본격적으로 국제 통상을 시작한 시점에서 정책적으로 수집한 외국 서적을 지칭하기 위해 ‘時務 관련 서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한다. <표 3> 참조.

〈표 3〉 《陰晴史》，《內下冊子目錄》，《新內下書目》，《春安黨書目》의 時務 관련 서적 목록

대분류	소분류	청	일본
학술서 적	과학	格物入門, 博物新編, 器象顯眞, 會地法源, 星輶指掌, 中西聞見錄選編, 電氣圖說, 西藝(知新), 格致彙編, 測候叢談, 植物學, 內科闡微, 重學, 續譯原序, 光學, 化學鑑原, 化學分原, 量法代算, 聲學, 圓錐曲線, 運規約指, 格致啓蒙, 化學初階, 金石識別, 地學淺釋, 代數術, 三角數理, 數學理, 董方立遺書, 句股六術, (算學)開方表, 對數表, 算法統宗, 弦切對數表, 八線簡表, 恒星圖表, 算學啓蒙, 八線對數簡表	洋算例題, 洋算例題續篇
	기술	冶金錄, 汽機新制, 汽機必以, 汽機發軔, 製紮新法, 槍礮操法, 電報節略, 開煤要法, 製火藥法, 井礦工程, 御風要術, 西藝知新, 火器眞訣, 航海簡法, 海塘(輯要), 平海心籌, 爆藥記要, 演礮圖說, 航法簡法	百工製作新書, 洋外礮具全圖, 蒸氣器械書, 西洋百工新書, 西洋百工新書外篇, 工業新書, 蒸氣機關問答, 百工應用化學編
	지리, 지리학, 지도, 측량도	新刊地球全圖, 瀛環誌略, 海道圖說, 朔方備乘圖說, 繪地法原, 測地繪圖, 地理問答, 平圓地球全圖	日本地誌提要, 橫濱稅關圖, 長岐稅關圖, 神戶稅關圖, 大日本國郡與地全圖, 大阪市中明細全圖
	의학	全體新論, 婦嬰新說, 西醫略論, 內科新說, 內科闡微, 製紮新法, 餅藥造法, 儒門醫學	重訂解體新書, 醫範提綱圖
	각국역사· 정치경제	古國鑑畧, 大英國志, 列國歲計政要, 富國策, 四裔編年表, 東方交涉記	明治史要

	국제법·국제정세	萬國公法, 中俄現今精形, 西國近事彙編, 中西關係略論, 西國近事彙	萬國商法
	종합서, 개혁론	易言, 求賢論, 聖武記	
제도·정책관련서적	군사	營壘圖說, 輪船布陣, 砲術新編, 輪船布陣圖, 水陸功守戰略秘書, 萬國公報(軍器抄), 水師操練, 兵船砲法, 防海新論, 營城揭要. 增補則克錄, 攻守礮法, 海上砲具全圖, 克虜伯礮說, 克虜伯礮彈造法, 克虜伯礮表, 克虜伯礮彈附圖, 克虜伯礮準心法, 行軍測繪	陸軍服制圖, 海軍蒸氣機械圖, 日本陸軍總制, 日本陸軍操典
	외교, 통상	大靑國大日本國條規章程, 大清國大巴西國通商條約, 日本條規章程, 和約彙抄, 北洋衙門咨抄, 李中堂來書, 十四國說則	日本國外務省事, 日本稅關各國貿易章程, 稅關職制慣行方法上屋規則, 日本通商論例
	조세		各課稅則抄, 立會略則, 英國會社類編, 內國勸業博覽, 百工儉約訓
	법률, 내치	同治中興京外奏議約編	新律綱領, 日本國內務省各局規則, 日市政記文部省, 日本大藏省職制事務章程, 日本國農商務省各局規則, 日本國內務省職掌事務, 工部省, 工部省各局, 訴訟法, 治罪法, 刑法
신문, 잡지, 기타 백과사전류	萬國公報, 申報, 中西聞見錄, 格致彙編	興亞公報, 百科全書	



표-3에서 보이듯 다양한 학술 서적과 제도 서적들이 1882년-1887년 사이에 대거 수집되어 서목으로 기록되어 있다. 표에서 드러난 중요한 특징은, 당시 조선 정부가 1880년대 개항 국면에 있어 새로운 지식 습득과 이해를 위해 필요로 했을 학술 서적들이 대부분 청으로부터 들여온 서적들이었다는 점이다. 학술서의 종류로는 과학과 기술서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과학의 경우 기초적인 종합 개론서로부터 물리학, 기상학, 화학, 수학, 지질학, 생물학 등 세분화된 서양과학서들을 망라하고 있다. 기술서의 경우 각종 기계와 전신, 광산, 무기류 등 청의 양무운동이 달성한 여러 실용적인 성과들에 대한 관심이 반영되어 있다. 또한 청의 자강을 위한 개혁안을 담은 鄭觀應의 《易言》과 같은 개혁론 서적도 눈에 띈다.

이에 비해 일본으로부터 들여온 서적들은 청으로부터 가져온 서적들과 달리 메이지 유신 이후 통치 체제와 관련한 실무적인 제도와 관련한 보고서들과 규칙, 법률, 그리고 약간의 기술 관련 서적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법률과 내치에 있어서는 중국보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온 서적들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일본 정부 각 부처의 章程과 규칙들, 그리고 법제에 대한 서적들은 일본의 새로운 정치 제도들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청으로부터 들여온 서적들과 일본으로부터 들여온 서적 간의 경향성의 차이가 분명한 것은 비단 교역의 문제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漢城旬報》의 학술기사들 중 그 활용 여부가 검증 가능한 서적과 잡지들로 는 《博物新編》, 《格物入門》, 《萬國公報》, 《化學鑑原》, 《中西聞見錄》, 《格致彙編》, 《德國學校論略》, 《西學考略》, 《米利堅志》, 《泰西運輸論》 등이 있는데, 일본어 번역 서적인 《米利堅志》와 《泰西運輸論》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하이와 북경 등지에서 서양 선교사들과 양무운동 주도세력의 협력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실제로 당대에 간행된 학술 서적과 잡지들 중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대표적인 서적들에 해당한

다.<sup>63)</sup> 당시 상하이로 중심으로 한 강남 지역의 지식 네트워크는 영국과 미국에서 온 개신교 선교사들과 한족 학자들의 협력으로 동아시아에서 가장 활발히 새로운 지식들을 생산해 내던 새로운 학문의 메카였다.<sup>64)</sup> 선교사들과 중국인 학자들은 유럽 언어를 한문으로 번역해 내는 언어적 전환의 과정에서 중요한 학술적 개념들을 전통적인 지식 체계와 접속시켜 새로운 한자 개념어들을 만들어 냈다.<sup>65)</sup> 번역 과정에서 고안된 한자 개념어들은 서양의 학문적 성과를 한자문화권 국가들의 지식체계 속에 포섭할 가능성을 열고 있었다.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조선 조정은 새롭게 생산된 지식들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으로부터 서적들을 수집하였고, 이들을 재구성하여 매체의 형태로 조선 사회에 보급하였던 것이다.

## 2. 축적된 지식의 재구성:

### 《公報抄略》과 《漢城旬報》의 학술기사

지구적 공간으로 확장된 세계관에 발맞추어 새로운 문물들을 소개하고 교육하기 위해 기획된 학술기사들은 기존에 없던 매체라는 플랫폼 안에서 다양한 지식들을 담아내고 있었다. 《漢城旬報》의 학술기사들은 매호 마지막 부분에 긴 논설 형태의 글들로 실려 있다. 기사를 통해 보급된 새로운 지식들은 주지하다시피 조선 정부의 적극적인 자료 수집에 의해 ‘축적’된 토대 하에서 선별적으로 선택되어 매체의 지면 위에 재구성된 것들이다. 이때의 재구성은 축적된 지식들을 토대로 선별의 과정을 거쳐 지면에 배치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복수의 출처로부터 기사를 집필하거나 필진의 사건을 덧붙이는 방식의 재구성까지 포함된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63) Elman, Benjamin, 2005, *ibid.* 314쪽.

64) 강남 지역의 지식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Meng Yue, 1999, “Hybrid Science versus Modernity: The Practice of the Jiangnan Arsenal 1864-1897”, *EASTM* 16, pp.13-52 참조.

65) 葛兆光, 이연승 옮김, 2008, *ibid.* 233쪽.

때, 《漢城旬報》의 학술기사들은 축적된 새로운 지식들을 조선 정부의 시각과 기준에 따라 선택적으로 전유된 공적 산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전술한 두 가지 의미의 재구성에 초점을 맞추어 《漢城旬報》의 학술 기사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여 그 윤곽을 그려낼 수 있다면, 앞서 서목들의 분석을 통해 밝힌 축적된 지식의 경향과 학술기사 간의 상관관계를 보다 선명히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학술기사들의 총체적 검토를 함에 있어 함께 주목해야 할 것이 1879년 역관 김경수(金景逵)가 편찬한 《公報抄略》이다. 《漢城旬報》가 발간되기 4년 전에 편찬된 《公報抄略》은 《漢城旬報》가 그 구성을 전유한 것으로 파악되는 청의 《萬國公報》와 그 전신인 《教會新報》의 기사들을 주된 출처로 하여 편찬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sup>66)</sup> 현재 확인할 수 있는 1880년대 이전의 편찬물들 중 청의 정기간행물들을 활용하여 책으로 엮은 매우 희귀한 사례이다. 동시에 이 책은 지식영의 개혁 정책 제언 상소에서 그 가치를 높이 살만큼 당대 개혁적 지식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준 것으로 보인다.<sup>67)</sup> 또한 《漢城旬報》의 학술기사들이 그러하듯 《公報抄略》은 단순 소식 전달 차원의 기사들이 아닌, 새로운 지식 전달의 목적을 띤 학술기사들로 채워져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역관 고영주(高永周)가 쓴 서문에서 “見聞 뿐만 아니라 修攘(內修外攘)을 돕기 위한 것”<sup>68)</sup>이라는 구절로 편찬의 취지가 설명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김경수는 개항 국면을 맞닥뜨린 조선 정부의 앞날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책을 편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취지는 개항 국면을 맞아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보급을 목적으로 한 《漢城旬報》의 발간 취지

66) 한림과학원 편, 2013, 《동아시아 개념연구 기초문헌해제Ⅱ》, 선인, 59쪽.

67) 《高宗實錄》, 고종 19년 8월 23일. “第伏念各國人士所著 萬國公法, 朝鮮策略, 普法戰紀, 博物新編, 格物入門, 格致彙編等書及我國校理臣金玉均所輯算和近事, 前承旨臣朴泳教所撰地球圖經, 進士臣安宗洙所譯農政新編, 前縣令臣金景逵所錄公報抄略等書, 皆足以開發拘曲, 瞭解時務者也.”

68) 《公報抄略》 1책,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 序, “噫先生一副苦心 奚獨爲利益聞見而已也 殆有望於修攘之一助云爾.”

와 매우 흡사하므로, 그로부터 약 4년 후에 발간을 시작한 《漢城旬報》의 학술기사들과의 비교 대상으로 삼기에 매우 적합하다.<sup>69)</sup>

먼저 본 논문 말미의 〈부표 1〉은 《漢城旬報》에 실린 학술기사들의 전체를 대주제에 따라 분류하고, 당대 유통되던 일본과 중국의 주요 잡지들과 한역서학서들과 비교, 대조하여 확인 가능한 출처들을 적시한 것이다. 출처가 공란으로 남겨진 기사는 주요 잡지들과 한역서학서들로부터도 그와 같은 글을 찾을 수 없었던 기사들이다. 다만, 출처를 찾아 낸 기사들 중 필진의 의견이 삽입된 기사들이나 복수의 서적들을 활용하여 재구성된 기사들은 따로 ‘(활용)’을 표기하여 구별하였다. 이 표를 통해 《漢城旬報》의 학술기사들이 대략 어떤 주제들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자연지리와 인문지리 기사들이며, 주요 서구 열강의 지리, 정치, 군사, 교육, 상업, 역사, 종교에 대한 풍부한 개관들이 뒤를 잇고 있다. 그밖에 세부적인 외교, 법률, 과학, 기술, 정치사회 제도, 의학, 광업, 농업 관련 기사들과 더불어 나라를 부강하게 할 다양한 국가 개혁책 및 각국의 세부적인 현황표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부표 1〉에서 보이듯 《漢城旬報》의 학술기사 중 《萬國公報》와 《中西聞見錄》을 출처로 하는 기사들 가운데에는 《漢城旬報》가 발간되기 4년 전에 만들어진 김경수의 《公報抄略》에서도 실린 경우가 확인된다. 총 7책으로 구성되어있는 《公報抄略》 중 현재 확인이 가능한 책은 고려대학교 소장본인 1, 3, 4, 5권으로, 나머지 2, 6, 7권에 실린 기사들 중에서도 중복된 기사가 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총 몇 개의 기사가 《漢城旬報》와 《公報抄略》에 공존하는지의 여부 역시 확정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적어도 〈부표 1〉을 통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漢城旬報》의 필진들이 학술기사를 구성함에 있어 《公報抄略》을 적극적으로 참고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물론 《漢城旬報》 학술

---

69) 1호부터 36호까지의 《漢城旬報》 학술기사 전체에 대한 분류, 출처, 주요내용에 대한 분석은 부록의 〈부표 1〉을 참조할 것.

기사들에는 《公報抄略》이라는 이름이 직접 등장하지는 않는다. 필진들은 자신들이 《公報抄略》을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있음을 얘기하지 않고 있으며, 《中西聞見錄》이나 《萬國公報》, 혹은 ‘公報’로부터 인용하였다고 서술하거나 아예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11호의 경우 5개의 학술기사가 《公報抄略》에서 발견되고, 17호는 5개, 20호는 무려 10개의 기사가 《公報抄略》과 중복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필진들은 《萬國公報》와 《中西聞見錄》의 방대한 기사들 중 취사선택함에 있어 《公報抄略》을 활용했던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다음의 <표 4>는 《漢城旬報》의 학술기사들 중 《公報抄略》에서도 발견되는 기사들을 모은 것이다.<sup>70)</sup>

<표 4> 《漢城旬報》의 학술기사 중 1879년 《公報抄略》에도 등장하는 기사

호수	기사제목	분류	인용출처/활용출처	주요내용
1호	地球論	자연지리	中西聞見錄 1호 '地學指畧 1장' (활용)	지구가 둥근 이유를 논증함
8호	中西時勢論	개혁책	萬國公報 第361期	서구의 부강함 소개, 중국의 부강책 강구
11호	飛車測天	기술	中西聞見錄 23호	열기구를 타고 하늘을 관측하는 방법
	入水新法	기술	中西聞見錄 9호	잠수 도구 소개
	詳述地中海新開記	기술		지중해의 운하 공사 과정과 그 활용 소개
	中西關係論	개혁책	林樂知, 中西關係論略 중 제4장 論中外交接其聯絡維持之法究竟如何辦理 (萬國公報 第356期 수록)	중서 외교관계, 중국의 개혁 방향 제안

70) 표 4는 부록의 표 5의 《漢城旬報》 학술기사 전체 목록 중 《公報抄略》에도 동시에 등장하는 사례들만을 따로 모아 둔 것이다. 출처는 필자가 《中西聞見錄》과 《萬國公報》, 교회신보 등으로부터 교차 검증을 통해 알아낸 것이다. 공란은 출처를 알 수 없는 경우이다. ‘\*’ 표시는 기사의 지면에 출처가 명시되어 있으나 정확한 원 출처의 호수를 찾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譯民主與各國 章程及公議堂 解	정치	萬國公報 第340期	서양 공화정과 헌법(章程)에 대한 설명
14호	火輪船源流考	기술	中西聞見錄 5호	화륜선의 발달사
16호	星學源流	자연과학	中西聞見錄 2호	고대 서양천문학 소개
	占星辨謬	자연과학	中西聞見錄 29호	근대 서양천문학 소개
17호	新式鐵路	기술	中西聞見錄 16호 丁韙良(美)	서양 열강의 신식 철로 활용도에 대한 설명
	論稱法	제도		무게 측량법 개선 제안
	論土路火車	기술	中西聞見錄 1호	서양의 철도와 화차 제작 기술과 활용 소개
	論保命局	제도		보험 제도 소개
	火器新式	기술	中西聞見錄 35호 丁韙良(美)	서양의 신식 화기 제작 현황과 성능 소개
18호	天時兩暘異常 考略	자연과학	中西聞見錄 18호	기후 변화의 원리와 그에 따른 치수 대책
	英國書籍博物院	제도	*萬國公報	영국 대영박물관 부속도서관 소개
19호	顯微鏡影燈	기술	中西聞見錄 19호	현미경 활용 방법
	二氣燈之光	기술	中西聞見錄 11호	환등기 활용 방법
	廈門設立博聞 書院	개혁책	萬國公報 第351期	博文書院을 건립하여 西學 진흥을 제안 함
20호	懸橋論略	기술	中西聞見錄 26호	서양 현수교의 기능과 원리
	海底隧道	기술	中西聞見錄 32호, 丁韙良(美)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해저 터널 추진
	地油井泉	광업	中西聞見錄 5호	지하 유전의 개광 방법
	地蠟	광업	中西聞見錄 10호	지랍(광물의 일종)의 유용성 소개

	美國金山	광업	中西聞見錄 22호, 丁韙良(美)	미국의 금광 개발
	美設術奇	사회	中西聞見錄 17호	독립 100주기를 기념하는 미국의 '術奇會(박람회)' 소개
	美利名登製造	기술	中西聞見錄 17호	미국의 레밍턴 제조장(製造廠)의 기술적 성과 소개
	行星論	자연과학	合信(英), "博物新編"	서양 천문학자들이 관측한 태양계의 행성들
	測天遠鏡	자연과학	"博物新編"	미국 워싱턴의 천문 망원경 소개
	侯氏遠鏡論	자연과학	"博物新編"	허셜(Herschel, F.)의 망원경 소개
22호	富國說(上)	개혁책	教會新報 204期	서구 열강들이 부유해 진 연원, 富強의 필요성, 富強을 위한 개혁책
23호	英國水晶宮	르포	*萬國公報	영국 Crystal Palace에 대한 르포 기사
	英國癡狂院	르포	*萬國公報	영국의 정신병원 소개
	富國說(下)	개혁책	教會新報 205期	서구 열강들이 부유해 진 연원, 富強의 필요성, 富強을 위한 개혁책
	法取火	자연과학	中西聞見錄 34호	불을 채취하는 여러 방법들
	恒星動論	자연과학	中西聞見錄 31호, 丁韙良(美)	서양 천문학자들이 관측한 항성 운동
24호	日本載筆	제도	*萬國公報	메이지 일본의 각종 국립 학교 설립과 그 기능
	日本國君勤政	정치	*約哥哈馬(요코하마)신문	메이지 일본의 정치사, 정치 현황
	禁烟說略	개혁책	中西聞見錄 30호 *萬國公報	아편의 해약과 근절 방법

《公報抄略》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萬國公報》와 그 전신인 《教會新報》만을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진 책이었는지, 아니면 《中西聞見錄》에서도 기사를 수록했는지의 여부는 속단하기 어렵다. 《萬國公報》에 실린 학술기사들 중 《中西聞見錄》에서 인용하여 실은 기사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中西聞見錄》에 실려 있던 원래의 기사를 《萬國公報》가 인용한 상태에서 《公報抄略》은 《萬國公報》를, 《漢城旬報》는 《公報抄略》을 통해 같은 기사를 인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sup>71)</sup> 그러므로 《公報抄略》과 《漢城旬報》가 기사를 《中西聞見錄》에서 가져왔는지, 《萬國公報》에서 가져왔는지의 여부를 세밀히 구분하여 밝히는 일은 무의미하다. 기사들의 인용과 재인용 방식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그 전후 관계를 따져보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中西聞見錄》, 《萬國公報》, 《公報抄略》, 그리고 다시 《漢城旬報》에까지 등장하는 기사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여러 매체에 중복되어 등장하는 기사의 내용은 당대 중국과 조선의 지식인들의 공통된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기사의 주제는 주로 서양의 자연과학과 기술, 산업, 그리고 그에 비춘 중국의 현실에 대한 개혁 방안 등에 집중되어 있다. 분류된 항목을 보면, 기존에 보고 들은 적이 없었을 서양의 진기한 기계와 기술적 성과에 대한 기사들이 전체 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연과학으로 분류된 기사들 역시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서양의 천문 관측기구들과 관측 결과 등에 대한 개괄적인 지식들을 제시하는 기초적인 지식들을 다루고 있다.

물론 《公報抄略》에는 서양의 자연과학과 기술적 성과만이 소개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현존하는 《公報抄略》 1, 3, 4, 5권 중 《漢城旬報》의 필진들은 서양의 과학지식 및 기술에 관한 기사들이 대거 담

71) 《漢城旬報》 20호의 경우 《中西聞見錄》을 출처로 하는 기사들이 대거 실려 있는데, 그들 중 대부분이 《公報抄略》에도 수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황은 《漢城旬報》 필진들이 20호를 편집할 때 《中西聞見錄》으로부터 기사를 인용함에 있어 《公報抄略》을 참고했을 가능성도 엿보이는 대목이다.



겨있는 3권과 4권 집중적으로 학술기사를 인용하고 있다.<sup>72)</sup> 1권에서는 8호의 中西時勢論, 5권에서는 22호와 23호에 걸쳐 富國說이라는 국가 개혁과 외교 전략에 대한 논설만을 인용하고 있을 뿐, 나머지 모든 기사들은 전부 3권과 4권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기사들이다. 이로 미루어보건대 《漢城旬報》의 필진들이 《公報抄略》의 활용을 통해서 《萬國公報》와 《中西聞見錄》으로부터 얻고자 한 지식들은 주로 서양의 과학과 기술에 대한 초보적인 소개글들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公報抄略》에 실린 기사들이 중복되어 수록된 《漢城旬報》의 학술기사들은 본 논문에서 학술기사로 분류한 전체 174개의 기사들 중 39개에 해당한다. 더군다나 《漢城旬報》 20호의 사례와 같이 10개의 기사가 한꺼번에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公報抄略》은 《漢城旬報》 필진들이 《中西聞見錄》과 《萬國公報》의 방대한 기사원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해 주는 일종의 매개체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36호에 그친 월간지인 《中西聞見錄》은 차치하더라도, 주간지의 형태로 1868년부터 1883년까지 750호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교회신보와 《萬國公報》로부터의 기사 선별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미 한 번 조선의 지식인에 의해 선별된 《公報抄略》의 존재는 《漢城旬報》 필진들로 하여금 큰 수고를 덜 수 있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漢城旬報》의 학술기사들을 전체적으로 분석해보면, 단순히 중국 신문들의 학술 기사들을 재구성 과정 없이 스크랩하여 책으로 묶은 《公報抄略》의 수준을 뛰어 넘는 면모들을 찾아볼 수 있다.<sup>73)</sup>

72) 송만오의 연구에 따르면 《公報抄略》은 권마다 다음과 같은 분야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 1권은 중국과 서양의 관계 변화 및 중국의 대처방안, 제 3권은 서양의 과학지식 및 기술, 제 4권은 서양 열강들의 모습, 제 5권은 부국강병의 구체적 실현 방안, 즉 개혁책이다. 송만오, 1999, 《韓國의 近代化에 있어 中人層의 활동에 관한 研究》, 전남대학교 박사논문, 86쪽. 이러한 분류 방식은 큰 무리는 없다. 다만 4권의 경우 세계 각국의 소식들에 대한 논설들과 함께 과학기술에 대한 논설들도 실려 있으며, 《漢城旬報》에서 나타나는 《公報抄略》 4권의 기사들은 주로 과학기술에 대한 기사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73) 본 논문 말미의 〈부표 1〉 참조.

《漢城旬報》의 학술기사들이 《公報抄略》과 비교하여 가장 큰 차별성을 보이는 지점으로는 출처의 다원화를 들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公報抄略》은 교회신보, 《萬國公報》, 그리고 《中西聞見錄》의 기사들만을 출처로 삼아 기사를 선별하여 엮었다. 그러나 《漢城旬報》의 학술기사들에는 명확한 출처의 명기 없이 일본,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 그리고 중국의 여타 일간 신문들로부터 가져왔음을 밝힌 기사들도 등장하며, 《中西聞見錄》의 후신인 《格致彙編》, 그리고 1878년에 발간을 시작한 가톨릭 과학잡지 《益聞錄》 등의 잡지들로부터 기사를 가져오고 있다.

또한 김경수가 《公報抄略》을 편찬한 1879년에는 구할 수 없었을 《西學考略》<sup>74)</sup>이라는 한역서학서를 활용한 기사들도 눈에 띈다. 《西學考略》은 Henry Wheaton의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1836)를 중문으로 번역하여 출판한 《萬國公法》의 역자 정위량이 청의 總理衙門의 요청에 따라 저술한 서양 교육과 학문에 관한 책이다.<sup>75)</sup> 1883년에 청의 同文館에서 출판된 이 책은 서양 교육과 서양 학문, 특히 서양 과학에 대해 《漢城旬報》 필진들이 구할 수 있었던 최신 서적 중 하나였을 것이다. 이 서적으로부터 인용한 기사로는 14호의 〈泰西文學源流考〉와 15호의 〈各國學業所同〉이 있다. 특히 14호의 〈泰西文學源流考〉는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서양의 자연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의 업적을 소개한 글로, 멀게는 탈레스(Thales)로부터 가깝게는 다윈(C. Darwin)의 종의 기원(物類推原)에 이르는 서양 자연철학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지식을 담고 있다.<sup>76)</sup> 15호의 〈各國學業所同〉은 서양 각국의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문

74) 《西學考略》, 1883, 同文館, 總理衙門印, Harvard-Yenching Institute 소장본

75) 정위량(丁韞良, William A.P. Martin)은 1880년부터 1882년 3월까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을 여행하며 얻은 새로운 정보들과 기타 여러 문헌들을 참고하여 1883년 《西學考略》을 편찬하였다. 肖朗, 2000, 〈我國近代比較教育研究的早期嘗試——論丁韞良的外國教育考察及《西學考略》〉, 《比較教育研究》 S1, pp.15-19.

76) 《漢城旬報》 14호, 〈泰西文學源流考〉. 이 기사는 《漢城周報》에도 두 차례에

의 종류와 그 연원에 대한 설명이 담겨있다.

일역서학서의 활용 사례도 엿보인다. 《漢城旬報》에는 아일랜드의 과학자 Dionysius Lardner (1793-1895)의 서적을 일본인 横尾平太가 번역한 《泰西運輸論》<sup>77)</sup>, 그리고 G.P. Quackenbos가 지은 미국사 교과서의 일본어 번역본 《米利堅志》<sup>78)</sup>으로부터 인용하여 실은 기사도 등장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전체 학술기사대비 비율로는 매우 적지만, 기존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지지 않은 일역서학서의 활용 사례로 매우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 기사들이 중요한 또다른 이유는, 출처가 알려지지 않은 학술기사들 중에 일역서학서들로부터 기사를 인용한 사례들이 있을 개연성을 시사한다는 점이다.

이렇듯 《公報抄略》에 비해 《漢城旬報》 학술기사들의 활용 출처들은 훨씬 다양했다. 《漢城旬報》에는 본고에서 출처를 규명한 학술기사들 외에도 여전히 70여개에 달하는 출처 미상의 학술기사들이 있다. 〈부표 1〉에서 인용출처/활용출처란이 공백으로 남겨진 기사들이 바로 그것으로, 이들 기사들은 당대에 주로 통용되던 주요 한역서학서들과 정기간행물들과의 교차 검증은 통해서도 쉽게 출처를 밝혀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출처 미상의 기사들은 《漢城旬報》의 필진들이 활용한 출처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욱 다양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漢城旬報》 학술기사들이 《公報抄略》과 차별성을 갖는 두 번째 특징은, 특정 학술기사들의 경우 필진들의 사건을 덧붙이거나 복수의 출처

---

걸쳐 다시 게재될 정도로 당시 조선의 신문 편집진들에게 중요시 여겨졌다. 이 기사의 원 출처에 대해 기존 연구들은 《中西聞見錄》이나 《六合叢談》으로 추정할 바 있지만, 확인 결과 《西學考略》에 실린 글을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77) D. Lardner, 横尾平太 譯, 1882, 《泰西運輸論》. 일본국회도서관 소장본. 이로부터 인용한 해당 기사는 《漢城旬報》 12호 〈泰西運輸論〉, 《漢城旬報》 13호 〈泰西運輸續稿〉.

78) G. P. Quackenbos著, 河野通之, 岡千仞 譯, 1873, 《米利堅志》(American history for schools). 일본국회도서관 소장본. 이로부터 인용한 해당 기사는 《漢城旬報》 19호의 〈科倫布檢出新地〉, 〈科倫布航海新地〉, 〈西班牙人馬爾慕亞檢出太平洋〉.

들로부터 내용을 인용하여 기사를 재구성한 흔적이 보인다는 점이다. 《公報抄略》의 기사들에서는 《萬國公報》나 《中西聞見錄》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본 결과 편찬자인 김경수 자신이 개입하거나 재구성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漢城旬報》의 학술기사들에서는 부록의 표 5에서 표기한 ‘활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일정 부분 재구성되거나 필진의 사건이 들어간 경우가 발견된다. 《公報抄略》이 지식의 선별이라는 의미의 재구성에 그쳤다면, 《漢城旬報》의 학술기사들은 선별과 더불어 지식 자체의 재구성 또한 이루어지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례로는 아주 소수이긴 하지만, 《漢城旬報》 필진들이 서양 지식에 대한 기초적인 가치 판단을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사례로는 창간호의 학술기사 〈地球論〉을 들 수 있다. 이 기사의 경우 본문에서 출처를 밝히고 있지 않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발간한 잡지 및 서학서들과 비교 대조해 본 결과 이 기사는 직접 인용한 것이 아니라 한 매체의 기사로부터의 발췌와 요약, 그리고 그에 대한 편집진의 독창적인 사건들로 구성된 기사임을 알 수 있었다. 이 기사는 지구의 모양이 둥글다는 학설을 소개함에 있어 편집진의 독창적인 문제의식을 먼저 서술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세상에서들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졌다(天員而地方)고 하는데, 이는 천지의 道를 말한 것이지 천지의 형상을 말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옛날 동방의 先儒들은 감히 이를 천명하기에 이르지 못했다. 明 중엽에 이르러 서양사람 마테오리치가 처음으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증명하자, 온 세상이 그 새로운 이론에 놀랐다. 또한 學士 大夫들은 中外의 편견에 젖어 있었으므로 수시로 들고 일어나 이를 비난하였다. 그러나 이치가 있는 것은 다만 분명히 판별하여 밝히는 것이 옳지, 中外를 구별할 일이 아니다.”<sup>79)</sup>

79) 《漢城旬報》 1호, 〈地球論〉

《漢城旬報》의 필진은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졌다는 전통적인 ‘天員地方’의 관념에 대한 세간의 오해를 바로잡는 것으로 기사를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선불리 道와 形의 구분에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판별해 볼 필요성만을 제기한다. 이러한 필진들의 서술에 바로 뒤이어 《中西聞見錄》 1호에 실린 〈地學誌略 一〉이라는 기사가 일부 발췌, 요약되어 실려 있다. 이 기사는 영국 선교사 包爾騰(J.S. Burdon)의 글로, 지구가 둥근 이유를 다섯 가지의 경험적 사례들로 증명하는 내용이다.<sup>80)</sup> 그리고 기사의 마지막에는 다음과 같은 필진의 의견을 덧붙인 구성을 보이고 있다.

“지구는 평평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들 단지 本國만 알고 他國은 모르며, 一面만을 보고 全體에 어두워 수천 년 동안 고루한 견해를 지켜온 것이니, 세계 각국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조롱과 무시를 받는 것은 진실로 이 때문이다” 이를 알게 된 후에는 經緯에 대한 說이 입에서 끊이지 않고 洲洋에 대한 이론이 마음에 蘊蓄되어 낮에는 富強의 方策을 강구하고, 밤이면 利用厚生의 方途를 되뇌며 發憤忘食하면서도 마치 이루지 못한 듯 계속 노력하는데, 이는 人情이 본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事理가 또한 쉽게 그만 둘 수 없는 것이다.<sup>81)</sup>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증명하는 내용에 이어진 필진의 서술은 결국 지구의 모양(形)이 둥글다는 경험적 증명이 이치(理)에 맞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결국 이 기사를 종합해보면, 어떤 것이든 경험적으로 증명되는 지식이라면 中國의 지식이나 外國의 지식이나를 따질 것 없이 이치(理)에 합당한 것이라는 주장이 도출되는 것이다. 사실 지구가 둥글다

80) 《中西聞見錄》 1호, 〈地學誌略 一〉

81) 《漢城旬報》 1호, 〈地球論〉.

는 주장은 조선 후기의 일부 지식인들에 의해 이미 다뤄진 바 있는 것으로, 조선 사회에서 완전히 새로운 지식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또한 19세기 중반의 지식인 南秉哲과 같이 천문학 분야에서 ‘中華’나 ‘夷狄’의 개념을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사례도 있었다.<sup>82)</sup> 하지만 관련 매체인 《漢城旬報》의 창간호에서 이렇게 지식에 대해 中外의 구분을 따지지 말아야 함을 주장한 것은, 조선의 지식장 안에 서양 지식을 적극적으로 포섭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명이자 선언이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의가 있다. 이러한 해석을 가능케 한 것은 기사의 서두와 말미에 사건을 덧붙인 필진들의 기사 재구성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만일 이 기사가 《公報抄略》과 마찬가지로 《中西聞見錄》의 기사를 통째로 인용하는 것에 그쳤다면, 지구가 둥글다는 학설을 소개하는 기사가 《漢城旬報》에 있다는 사실 이상의 의미를 갖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위 사례와 같이 필진의 사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그 기사가 활용한 원 출처를 알아내고, 원 출처의 기사와 그것을 활용하여 집필한 《漢城旬報》의 기사를 비교하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재구성의 흔적이 엿보이는 기사들은 대부분 그 출처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있다. 예를 들어 5大洋 5大洲에 대한 총론과 아시아대륙에 대한 지리 지식을 담은 1호의 〈論洲洋〉, 2호의 〈論地球運轉〉과 〈歐羅巴洲〉, 9호에 실린 〈電報說〉은 모두 출처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sup>83)</sup> 검토 결과 한역서학서 《博物新編》<sup>84)</sup>과 《中西聞見錄》의 기사를 일부 인용하고, 알 수 없는 다른 출처들로부터 정보를 모아 기사를 구성한 사실이 확인된다.<sup>85)</sup> 이 가운데 어디까지가 필진의

82) 전용훈, 2013, 〈19세기 조선에서 서양 과학과 천문학의 성격-청조 고증학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과학사학회지》 제35권, 440쪽.

83) 《漢城旬報》 1호, 〈論洲洋〉. 2호, 〈論地球運轉〉, 〈歐羅巴洲〉. 9호, 〈電報說〉.

84) 《博物新編》 - 奎中4922.

85) 《中西聞見錄》을 지면에 출처로 명기한 기사들의 경우 발췌나 요약 등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 직접 인용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출처 명기의 유무는 결국 재구성의 유무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건이고 어디까지가 또 다른 출처로부터 가져온 구절인지는 알기 어려우나, 적어도 이러한 사례들은 《漢城旬報》의 출처 미상 기사들 중에 재구성된 기사들이 많을 가능성을 시사한다.<sup>86)</sup>

세 번째는, 활용한 출처를 확인할 수 없으나 필진의 사건이 덧붙여진 것이 분명한 기사들의 존재이다. 글의 화자가 조선의 현실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대목들이 있는 학술기사들이 이에 해당한다. 27호의 〈航海說〉이라는 기사의 경우 뛰어난 항해술로 부강해진 서구 열강들을 언급하면서, 국토가 반도의 형태인 관계로 沿海가 많고, 목재가 풍부하며, 파도가 고요하고, 인구가 많은 조선의 지리적 특성이 선박 제조와 항해술의 발달에 유리함을 설론했다.<sup>87)</sup> 또한 34호에 실린 〈公法說〉이라는 기사는 당시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던 ‘公法’에 대한 간단한 소개에 뒤이어 두 나라가 전쟁을 치르는 중에 제3국이 취해야 할 권리와 책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필진들은 제3국의 권리와 책임을 소개하는 이유로 중국과 프랑스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던 당시 조선이 취해야 할 입장을 알아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sup>88)</sup>

86) 2호부터는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대륙에 대한 지리 지식에 이어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네덜란드와 같은 서구 열강들의 지리 지식을 연재의 형태로 실고 있다. 각 지역에 대한 誌略 기사들은 자연지리뿐만 아니라 인문지리 지식까지 총체적으로 개론하고 있는데, 자연지리 지식으로는 대륙과 맞닿아 있는 바다와 대륙 안의 대표적인 산과 강, 지대와 기후, 지형 등을 망라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 인종, 언어, 종교, 풍속, 문화, 정치, 학문(文學) 등의 인문지리 지식도 담고 있다. 이들 지리 기사들은 각 대륙과 국가에 대해 가능한 한 풍부한 지식들을 담는 데에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다. 기사들은 특정한 체계 없이 다양한 분야에 걸친 개론적 지식들이 나열되어 있고, 출처를 명기하고 있지 않다. 출처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실로 보아 여러 정기간행물들 혹은 한역서학서들로부터 정보를 모아 재구성한 기사들로 추론된다. 이러한 지리 기사들로는: 《漢城旬報》 2호 〈歐羅巴洲〉, 3호 〈亞米利加洲〉, 4호 〈亞非利駕洲〉, 5호 〈阿西亞尼亞洲〉, 6호 〈英國誌略〉, 12호 〈美國誌略〉, 15호 〈法國誌略〉, 16호 〈法國誌略續稿〉, 18호 〈獨逸國誌略〉, 19호 〈獨逸國誌略續稿〉, 26호 〈俄國誌略〉, 28호 〈俄國誌略續稿〉, 30호 〈伊國誌略〉, 31호 〈和蘭誌略〉, 36호 〈澳大利亞洲〉가 있다.

87) 《漢城旬報》 28호, 〈航海說〉. 이 기사에서는 조선의 지리적 이점에 대한 필진의 언급에 이어서, 항해술 교육과 해양 산업을 통해 부강해진 미국의 사례와 이를 모방한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네 번째 재구성 사례는 한 기사 안에 한역서학서로부터 들여온 지식과 일역서학서로부터 들여온 지식이 공존하는 경우이다. 앞서 소개한 14호의 〈泰西文學源流考〉가 바로 그 사례이다.<sup>89)</sup> 1883년 정위량이 지은 《西學考略》에 수록된 〈西學源流〉라는 글을 인용한 이 기사에는 일정 부분 내용 재구성의 흔적이 엿보인다. 〈泰西文學源流考〉에는 다윈의 진화론을 소개하는 부분에 원 출처인 《西學考略》에 없는 ‘이러한 관점을 이른바 순화론(醇化論)이라고 한다’라는 문장이 필진에 의해 첨언되어있다.<sup>90)</sup> 이 문장에서 등장하는 ‘醇化’라는 표현은 스펜서(H. Spencer)의 저서 *Principles of Sociology*(1876)를 1883년에 承竹孝太郎이 일역하여 출판한 《社會學之原理》에서 ‘evolution’을 번역한 개념어이다.<sup>91)</sup> 메이지 일본의 지식사회에서는 ‘evolution’의 번역어로 ‘變遷,’ ‘進化,’ ‘醇化,’ ‘遞化’ 등이 경합을 벌인 끝에 ‘進化’라는 단어로 정착되었다.<sup>92)</sup> 요컨대 《漢城旬報》의 필진은 다윈의 진화론에 대한 내용은 정위량의 글에서 가져온 동시에 그에 대한 개념어는 메이지 일본의 지식사회에서 경합하던 번역어 중 한 가지를 빌려온 것이다. 이는 비록 매우 희귀한 사례이지만, 아직 출처 미상으로 남은 학술기사들의 출처가 더 밝혀진다면 이와 같은 사례가 더욱 많이 발견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지식의 재구성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언급해야 할 점은 서구의 각종 정치, 사회, 법제와 관련된 제도들을 소개하는 기사들에서 보이는 일정한 서사구조에 관한 것이다. 서양의 법률 체계를 소개하는 7호의 〈泰西法

88) 《漢城旬報》 34호, 〈公法說〉.

89) 〈西學考略〉 및 《中西聞見錄》에 실린 정위량의 글들과 이를 활용한 《漢城旬報》 학술기사들 사이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한다면 19세기 한역서학서들이 조선 지식인들에게 미친 사상사적 의미를 보다 더 명확히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차후 연구과제로 삼아 검토할 예정이다.

90) 《漢城旬報》, 14호, 〈泰西文學源流考〉. “以觀之乃所爲醇化論.” 정위량의 저서 《西學考略》에는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 특정한 개념어를 사용하여 명명하지 않고 있다.

91) Spencer, Herbert, 承竹孝太郎 譯, 外山正一 閱, 1883, 《社會學之原理》 券1, 經濟雜誌社.

92) 守屋毅, 1988, 《モースと日本》, 小學館, 312쪽.



律〉, 구미 입헌 정치의 구조와 원리를 설명한 10호의 〈歐米立憲政體〉, 구미의 지방정치의 구조 및 원리를 설명한 11호의 〈歐米地方政治〉는 서양의 법과 정치 제도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세 기사의 말미에는 모두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의 정치 제도가 이와 흡사하다는 점을 들며, 서양의 제도와 일본의 제도를 연계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모했다. 또한 구미의 징병 제도를 설명하는 11호의 〈歐美徵兵法〉도 일본의 군사 징집 절차가 그와 비슷함을 들어 그 우수성을 설명했다. 15호의 경우 이러한 사례가 대거 나타난다. 서양의 출판 저작권을 개관한 〈出版權〉 역시 그러하며, 바로 그 다음 기사로 등장하는 〈出版條例罰則〉은 일본의 출판권 관련 조례와 처벌법을 소개하고 있다. 같은 호의 〈博覽會說〉은 서구 각국의 박람회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일본의 모방 사례와 연계하여 설명했다. 이탈리아의 개관, 발달 현황과 그 동력을 설명하고 있는 16호의 〈伊國日盛〉에서도, 기사 말미에 ‘근래에 일본 역시 서양의 도서관 제도를 본받아 고금의 도서들을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sup>93)</sup>는 내용을 덧붙여 메이지 유신 이후 만들어진 일본의 도서관 제도를 비슷한 사례로 들고 있다.

이렇게 일본의 사례와 연계하여 설명하고 있는 기사들이 모두 제도에 관한 기사들이라는 점은 앞서 살펴본 1882년-1887년 사이에 만들어진 서목들을 통해 본 서적 수집의 경향성과 조응하고 있다. 일본으로부터 가져온 서적들이 주로 메이지 유신 이후 만들어진 일본의 새로운 제도들에 관한 서적들이었다는 사실을 주지한다면, 《漢城旬報》의 제도 관련 학술기사들이 취한 서사 구조는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 기사들의 내용은 서목에서 보이는 일본으로부터 가져온 서적들을 활용했는지의 여부는 해당 서적들을 전부 찾아내어 확인하기 전까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서적들의 수집 경향을 통해 읽어낼 수 있는 일본에 대한 조선 정부의 관심 분야가 《漢城旬報》의 학술기사에 반영되고 있다는

93) 《漢城旬報》 16호, 〈伊國日盛〉.

것이다. 그 외에 《漢城旬報》에 실린 일본 자체에 대한 기사들로는 일본 역사에 관한 기사 한 건과 일본 정부의 세입 세출 현황표를 제외하고는 정치제도, 교육제도, 운수제도, 지세(地稅)제도 등 각종 제도에 대한 소개와 그 효용에 대한 기사들에 국한되어 있다.<sup>94)</sup> 이렇듯 탈바꿈한 메이지 일본의 제도에 대한 관심은 지식의 축적이라는 서적 수집의 경향성에 있어서도, 지식의 선별과 재구성에 해당하는 《漢城旬報》 학술기사의 편집에 있어서도 공히 반영되었던 것이다.

또한 서구의 여러 우수한 제도를 소개하는 출처 미상의 기사들 중 일부가 일정한 패턴으로 일본의 사례를 뒤에 덧붙여 구성되어 있는 것은 비단 새로운 지식을 포섭하기 위한 노력의 사례만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비록 전체로 보아서는 소수에 불과하긴 하지만,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통해 부강한 서구의 제도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당면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던 1880년대 조선 조정의 의도를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기사들은 서구가 부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답들을 제시하며, 그 와중에 가까운 일본의 예를 의도적으로 삼입함으로써 조선의 독자들을 이해시키고자 하였다.

이렇듯 학술기사들은 지식의 선별은 물론 지식 자체의 재구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김경수의 《公報抄略》보다 진일보 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전체 학술기사의 분석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식의 선별 단계에 머무른 기사들이 지식 자체를 재구성한 사례보다 더 많이 확인된다.<sup>95)</sup> 조선 역사상 최초의 시도였던 정기간행물을 통한 서양 지식의 재구성의 성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으며, 불과 1년에 그친 발간 기간은 그 한계를 극복하기에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

94) 《漢城旬報》 5호, 〈日本史略〉. 25호, 〈明治十七年度歲入歲出豫算〉. 24호, 〈日本國君勤政〉. 24호, 〈日本國君勤政〉. 24호, 〈日本載筆〉. 27호, 〈鐵路利益〉. 35호, 〈日本地租例〉.

95) 〈부표 1〉의 인용출처/활용출처란에서 ‘(활용)’으로 표시된 기사들이 이에 해당한다.

#### 4. 맺음말

지금까지 1883년 조선에서 발간한 최초의 신문 《漢城旬報》의 구성적 특징 및 그 연원, 그리고 《漢城旬報》 학술기사들을 통해 본 새로운 지식의 재구성 양상을 밝히고, 그 역사적 의미를 검토해보았다. 지면의 대부분을 국외의 매체나 서적들로부터 인용, 재구성한 기사들로 채워진 《漢城旬報》의 특성상, 그 의의를 제대로 읽어내기 위해 그러한 구성을 갖추게 된 국내적 상황과 더불어 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19세기 중국의 매체 발달 양상을 염두에 두고 조망해보고자 하였다.

본고는 지적 구성물로서의 《漢城旬報》가 가지고 있는 구성적 특징의 연원을 살펴보았다. 외국기사(各國近事) 편중성의 연원으로는 신문에 대한 조선 정부의 초창기 인식과, 신문 창간을 초기에 주도한 유길준의 논거를 들어 설명하였다. 유길준은 《漢城旬報》의 국내기사가 소략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으로 낙후된 사회와 불편한 교통, 사실을 말하기 꺼리는 풍습 등을 들었다. 반면 외국의 소식과 새로운 지식 보급을 위한 지식원들은 조선 정부에 의해 정책적으로 수집된 서적과 매체들에 의지할 수 있었으므로 상대적으로 쉽게 다양한 분야의 기사들을 게재할 수 있었다. 더불어 19세기 초반부터 중국 서양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청의 매체 발달사의 영향을 검토하였다. 선교를 목적으로 동아시아에 진출했던 개신교 선교사들은 ‘지식선교’의 차원에서 서양 지식 보급을 위한 정기간행물 발간에 착수하였고, 이들의 활동은 중국의 개항장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지속된 결과 1874년, 대표적인 종합잡지로 이름을 날린 《萬國公報》가 창간되기에 이르렀다. 형태와 내용 구성상의 유사성으로 미루어보아 조선 정부가 간행한 《漢城旬報》는 《萬國公報》의 구성 방식과 의제를 상당부분 전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1882년-1887년 사이에 작성된 규장각 서목들의 분석을 통해 당시 조선 정부가 축적한 서양 관련 서적들과 정기간행물들의 현황을 알

아본 결과, 청과 일본을 통해 들여온 서적들의 종류에 있어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러한 지식 축적의 경향성이 《漢城旬報》 학술기사들과 어떻게 조응하고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학술기사 전체에 대한 분야, 출처, 주요 내용 정리를 시도하였다.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아예 미상인 학술기사들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 당대 중국과 일본에서 통용되던 주요 한역서학서들과 정기간행물들과의 교차 비교를 시행하였고, 필진들의 기사 재구성의 양상을 일정 부분 밝혀낼 수 있었다. 《漢城旬報》의 학술기사들은 1879년 김경수가 편찬한 《公報抄略》에 비해 새로운 지식의 선별과 지식 자체의 재구성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비록 《漢城旬報》는 갑신정변의 여파로 폐간되기까지 단 1여년 정도밖에 발간되지 못했지만, 그 안에 남긴 지식과 정보의 양은 당대 조선에서 편찬된 외국의 정세와 서양 지식들에 관한 그 어떤 서적보다도 방대하다. 그 중에서도 본고에서 다룬 학술기사들은 조선이 본격적인 세계체제 속으로 접어드는 19세기 후반의 국면에 있어 정부의 주요 의제들과 가치 판단이 담겨있는 소중한 사료이다. 본고는 비록 《漢城旬報》만의 학술기사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마쳤지만, 한글로 된 학술기사들이 출현하는 《漢城周報》에 대한 연구로 이어진다면 1880년대 조선 정부의 새로운 지식의 포섭 및 재구성 양상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본고에서 일부 시도한 19세기 동아시아의 서양지식과 《漢城旬報》와의 관계 조망에 대한 연구는 출처 미상의 기사들에 대한 규명을 포함하여 추후의 작업으로 남겨두고자 한다.

- 1) 인용출처/활용출처란에 기재한 출처들 중 ‘\*’가 기재된 것들은 기사 본문에 대략적인 출처가 밝혀져 있으나 원 출처의 어떤 기사를 인용하였는 지 확인 불가능한 것들임. 나머지는 필자가 직접 발견한 출처들임.
- 2) 인용출처/활용출처란에 기재한 출처들 중 ‘(활용)’이 기재된 것들은 원 출처의 글을 일부를 활용하여 한성순보의 필진이 새롭게 재구성한 것으로 필자가 확인한 기사들임. 단, “博物新編”과 “化學鑿原”을 활용한 기사들은 선행 연구에서 미리 밝혀진 바 있음. 《中西聞見錄》으로부터 인용한 기사들 중 과학기술 기사들에 대한 원 출처 규명 작업 역시 동일한 연구에서 시행된 바 있으나 오류가 있어 전체적으로 재검토하여 위 표에 반영함. (김연희, 2011, ibid.)

**<부표 1> 漢城旬報 제1호-36호 내에 수록된 학술기사 목록과 출처, 주요내용**

번호	호수	기사제목	분류	인용출처/활용출처	公報抄略 수록여부	주요내용
1	1호	地球圖解	자연지리			地球圖를 읽는 법
2		地球論	자연지리	中西聞見錄 1호 ‘地學指畧 1장’ (활용)	O	지구가 둥근 이유를 논증함
3		論洲洋	인문, 자연지리	中西聞見錄 3호 ‘地學指畧 3장’ (활용)		지구의 대륙과 대양에 대한 개괄적 설명
4	2호	論地球運轉	자연지리	博物新編 ‘地球亦行星論’ (활용)		지동설 개관
5		歐羅巴洲	인문, 자연지리	中西聞見錄 4호 ‘地學指畧 4장’ (활용)		유럽 대륙의 인문, 자연지리 정보 개관
6	3호	會社說	사회제도			서양의 회사 제도에 대한 설명
7		亞米利加洲	인문, 자연지리			아메리카 대륙의 인문, 자연지리 정보 개관
8	4호	論電氣	자연과학			전기의 정의, 전기 발견의 역사, 전기 활용 사례들.

9		亞非利鴛洲	지리			아프리카 대륙의 인문, 자연지리 정보 개관
10	5호	日本史略	역사			일본 역사 개관
11		阿西亞尼亞	지리			오세아니아 대륙 개관
12	6호	銷兵議	외교			국가간 전쟁을 없애는 방법에 대한 논의
13		論華人三興致富	상업	*상해신보		서구인의 상업 증시, 중국인 삼흥의 치부
14		英國誌畧	국가개관			영국의 지리, 정치, 군사, 교육, 상업, 역사 개관
15	7호	各國新製軍艦表	현황			1882년 세계 각국의 새로 조선한 군함 현황
16		各國軍費及國債	현황			세계 각국의 군비와 국가 채무 규모 현황
17		英人演說	외교	*런던의 신문		영국의 인도 식민화 정책 비판
18		泰西法律	법률			서양 법률의 특성 개관 - 서양 법률 체계를 근거로 한 일본 법률과 연계 설명
19	8호	中西時勢論	개혁책	萬國公報 第361期	O	서구의 부강함 소개, 중국의 부강책 강구
20		華人可爲工局董事論	사회문제	*상해신보		조계지 내 관리직 인사 문제(중국인 차별)

21		電報說	기술	中西聞見錄 34호 '電報論略' (활용)		전보의 구성과 원리
22	9호	各國陸地電線表	현황표			세계 각국의 전선 현황표(육지)
23		各國海底電線表	현황표			세계 각국의 전선 현황표(해저)
24		歐米立憲政體	정치제도			구미 입헌정치의 구조와 원리 - 일본 정치와 연계 설명
25		中西法制異同說	개혁책	*滬報		중서 법제와 도덕의 유사점과 차이점, 상호보완적 요소들
26		洋務首在得人論	개혁책	*滬報		洋務에 있어 인재 등용의 중요성
27	10호	在上不可達民情論	개혁책	*滬報		정치 과정 속 上下相通의 필요성
28		地球圓日圖解	천문학			지구의 자전과 공전
29		歐羅巴史記	역사			유럽 역사 개관
30		歐洲各國帝王生年元年及系統政治一覽表	역사			유럽 각국 군주의 생년, 즉위년, 왕가의 통치 년수, 政體
31		飛車測天	기술	中西聞見錄 23호	O	열기구를 타고 하늘을 관측하는 방법
32	11호	入水新法	기술	中西聞見錄 9호	O	잠수 도구 소개
33		詳述地中海新開記	기술		O	지중해의 운하 공사 과정과 그 활용 소개

34		中西關係論	개혁책	林樂知, 中西關係論略 중 제4장 論中外交接其聯絡維持之法究竟如何辦理 (萬國公報 第356期 수록)	O	중서 외교관계, 중국의 개혁 방향 제안
35		歐米地方政治	정치			구미 지방정치의 구조와 원리 - 일본 정치와 연계 설명
36		譯民主與各國章程及公議堂解	정치	萬國公報 第340期	O	서양 공화정과 헌법(章程)에 대한 설명
37		歐美徵兵法	군사			구미의 징병 제도 소개 - 일본의 모방 사례와 연계 설명
38		論中國戰船	군사	*上海新報		구미와 비교한 중국의 병선 현황
39		俄國疆域記	지리	*일본近信		러시아 국토의 역사적 변천
40	12호	泰西運輸論	기술	ヂオニシヤス・ラルドネル著, 横尾平太 譯, "泰西運輸論(上)"		서양의 발달한 운수 기술의 필요성과 장점
41		地球還日成歲序圖說	천문학			지구의 공전에 따른 기후 변화 논증
42		美國誌畧	국가개관			미국의 지리, 정치, 군사, 교육, 상업 개관



43	13호	日本海軍再述	군사			일본해군의 현황
44		泰西運輸續稿	기술	ヂオニシヤス・ラルドネル(英)著, 横尾平太 譯, "泰西運輸論(下)"		서양의 운수 기술 발달사와 현황
45		各國火車鐵路表	현황표			세계 각국의 철로 현황표
46		租稅統計表	현황표			구미 각국 인구와 조세 현황표
47	14호	亞細亞洲總論	인문, 자연지리	*일본 金子彌兵衛 論說		아시아 대륙의 인문, 자연지리 정보 개관
48		泰西文學源流考	학문사	丁謙良(美), 《西學考略》(활용)		서양 자연철학사, 과학사 개관
49		火輪船源流考	기술	中西聞見錄 5호	O	화륜선의 발달사
50		歐亞比例說/歐洲各國面積及人口一覽表, 歐洲各國兵備一覽表	각국현황			유럽과 아시아의 면적, 인구, 군사 현황 비교
51		美國誌畧續稿	국가개관			미국 역사 개관
52	15호	化學功用	과학	*滬報		서양 화학 발달에 대한 소문
53		千八百八十二年電氣史	과학			電氣學의 발달과 기술적 활용
54		各國學業所同	학문사	丁謙良(美), 《西學考略》		서양 학문사 개관
55		學校	제도			서양의 학교 제도 개관
56		泰西郵制	제도			서양의 우편 제도 개관

57		出版權	제도			서양의 출판 저작권 개관 - 일본의 모방 사례와 연계 설명
58		出版條例罰則	제도			일본의 출판권 관련 조례와 처벌법
59		博覽會說	제도			서구의 박람회 소개 - 일본의 모방 사례와 연계 설명
60		法國誌略	국가개관			프랑스 지리, 정치제도 개관
61	16호	俄國農業	농업			러시아의 농업 현황
62		伊國日盛	국가개관			이탈리아 개관, 발달 현황과 그 동력 - 일본의 모방 사례와 연계 설명
63		美國日盛	국가개관			미국의 國富 현황
64		美國大統領演說	기타			미국 대통령 Chester Arthur의 국회 시국연설문
65		各海口宜設西醫學堂論	개혁책			서양 의학의 유용성, 개항장에 서양 의학교를 건립할 필요성
66		星學源流	자연과학	中西聞見錄 2호	O	고대 서양천문학 소개
67		占星辨謬	자연과학	中西聞見錄 29호	O	근대 서양천문학 소개
68		歐美稅制	제도			서양 각국의 조세제도 개관
69	17호	歐洲各國京都經緯表	지리			유럽 각국 수도의 경도/위도표

70		新式鐵路	기술	中西聞見錄 16호 丁韙良(美)	O	서양 열강의 신식 철로 활용도에 대한 설명
71		論稱法	제도		O	무게 측량법 개선 제안
72		論土路火車	기술	中西聞見錄 1호	O	서양의 철도와 화차 제작 기술과 활용 소개
73		論保命局	제도		O	보험 제도 소개
74		火器新式	기술	中西聞見錄 35호 丁韙良(美)	O	서양의 신식 화기 제작 현황과 성능 소개
75		法國誌略續稿	국가개관			프랑스의 식민지, 종교, 교육, 군사, 국부, 역사 개관
76		天時雨暘異常考略	자연과학	中西聞見錄 18호	O	기후 변화의 원리와 그에 따른 치수 대책
77		技藝院	제도	Ernst Faber著, 王炳堃 譯, "德國學校論略"		서양 기술학교의 교과 내용과 구조
78	18호	格物院	제도	Ernst Faber著, 王炳堃 譯, "德國學校論略"		서양 과학학교의 교과 내용과 구조
79		英國書籍博物院	제도	*萬國公報	O	영국 대영박물관 부속도서관 소개
80		獨逸國誌略	국가개관			독일 역사, 정치, 지리, 상업, 종교 개관
81		救生船略	기술	中西聞見錄 27호 (활용)		서양 구조선의 구성과 활용 소개
82	19호	論立中外求生船總會章程	제도	*萬國公報		중국과 서구열강간 구조선 운용 규약 내용
83		顯微鏡影燈	기술	中西聞見錄 19호	O	현미경 활용 방법

84		二氣燈之光	기술	中西聞見錄 11호	O	환등기 활용 방법
85		廈門設立博聞書院	개혁책	萬國公報 第351期	O	博文書院을 건립하여 西學 진흥을 제안함
86		論牛痘來歷	의학	*萬國公報		우두법의 내력과 내용 개관
87		德國誌略續稿	국가개관			독일의 교육, 국부, 정치,
88		科倫布檢出新地	역사	G. P. Quackenbos著, 河野通之, 岡千仞 譯, "米利堅志(American history for schools)"		콜롬버스의 신대륙 발견
89		科倫布航海新地	역사	G. P. Quackenbos著, 河野通之, 岡千仞 譯, "米利堅志(American history for schools)"		콜롬버스의 두 번째 신대륙 항해와 '아메리카'의 유래
90		西班牙人馬爾慕亞檢出太平洋	역사	G. P. Quackenbos著, 河野通之, 岡千仞 譯, "米利堅志(American history for schools)"		발보아(Vasco Núñez de Balboa)의 태평양 발견
91		各國江河表(上)	현황표			세계 각국의 주요 강들의 길이와 水量
92	20호	懸橋論略	기술	中西聞見錄 26호	O	서양 현수교의 기능과 원리
93		海底隧道	기술	中西聞見錄 32호, 丁韞良(美)	O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해저 터널 추진
94		地油井泉	광업	中西聞見錄 5호	O	지하 유전의 개광 방법
95		地蠟	광업	中西聞見錄 10호	O	지랍(광물의 일종)의 유용성 소개
96		美國金山	광업	中西聞見錄 22호, 丁韞良(美)	O	미국의 금광 개발

97		美設術奇	사회	中西聞見錄 17호	O	독립 100주기를 기념하는 미국의 '術奇會(박람회의 일종)' 소개
98		美利名登製造	기술	中西聞見錄 17호	O	미국의 레밍턴 제조창(製造廠)의 기술적 성과 소개
99		行星論	과학	合信(英), "博物新編"		서양 천문학자들이 관측한 태양계의 행성들
100		測天遠鏡	과학	"博物新編"	O	미국 워싱턴의 천문 망원경 소개
101		侯氏遠鏡論	과학	"博物新編"	O	허셜(Herschel, F.)의 망원경 소개
102		歐美富有表	현황표	*日本新報		구미의 상업자본과 군비, 국책이자 액수 현황
103		萬國衛生會	제도			구미의 위생 제도
104		風雨鍼	자연과학	"博物新編", "格物入門" (활용)		기압계 '風雨鍼' 소개
105		寒暑鍼	자연과학	"博物新編", "格物入門" (활용)		온도계 '寒暑鍼' 소개
106		泰西製鐵法	기술	中西聞見錄 5호		서양의 제철 기술 소개
107	21호	各國氣候一覽表(上, 下)	현황표			세계 주요 도시의 최고/최저 기온과 강우량 측정표
108		亞非利加各地人口一覽表	현황표			아프리카 각지 인구 일람표(1875년 기준)

109		世界人口一覽表	현황표			세계 각 대륙의 인구 일람표(1875년 기준)
110		合衆國財政概況	국가현황	*미국 大藏卿 연보		미국의 재정 현황
111		論製造不可畏難說	개혁책	中西聞見錄 5호		무기 활용과 군사 정책의 개혁 제안
112		論養氣	자연과학	"博物新編", "化學鑒原" (활용)		산소의 발견 경위, 성질, 추출 방법
113		論經氣	자연과학	"博物新編", "化學鑒原" (활용)		수소의 발견 경위, 성질, 추출 방법
114		論淡氣	자연과학	"博物新編", "化學鑒原" (활용)		질소의 발견 경위, 성질, 추출 방법
115	22호	東半球噴火山高低說	현황표			동반구에 분포한 분화산들의 높이
116		泰西河防	기술	中西聞見錄 5호		스코틀랜드(蘇格蘭)의 치수 사업 사례 소개
117		富國說(上)	개혁책	教會新報 204期	O	서구 열강들이 부유해 진 연원, 富強의 필요성, 富強을 위한 개혁책
118		北米合衆國外國貿易年報/金銀項輸出輸入/各外國貿易	현황표	*미국 大藏卿 연보		미국의 무역 현황표
119		英國水晶宮	르포	*萬國公報	O	영국 Crystal Palace에 대한 르포 기사
120	23호	英國癡狂院	르포	*萬國公報	O	영국의 정신병원 소개
121		論中國一統之勢獨成於元	역사			청에 이르기까지 중국 왕조들의 강역과 역사적 개관

122		富國說(下)	개혁책	教會新報 205期	O	서구 열강들이 부유해 진 연원, 富強의 필요성, 富強을 위한 개혁책
123		論炭氣	자연과학	"博物新編", "化學鑒原" (활용)		탄소의 정의, 성질, 추출 방법
124		論綠氣	자연과학	"博物新編", "化學鑒原" (활용)		염소의 정의, 성질, 추출 방법
125		論炭經二氣	자연과학	"博物新編", "化學鑒原" (활용)		탄화수소의 활용
126		法取火	자연과학	中西聞見錄 34호	O	불을 채취하는 여러 방법들
127		恒星動論	자연과학	中西聞見錄 31호, 丁韙良(美)	O	서양 천문학자들이 관측한 항성 운동
128		奧國政府一歲出入豫 算表議案說明	국가현황	*빈에서 간행된 신문		오스트리아 국회에서 大藏卿이 발표한 한 해 재 정보고
129		明治十七年度歲入歲 出豫算	국가현황			1883년 일본 정부의 세입 세출 예산표
130		日本載筆	제도	*萬國公報	O	메이지 일본의 각종 국립 학교 설립과 그 기능
131		日本國君勤政	정치	*約哥哈馬(요코하마)신문	O	메이지 일본의 정치사, 정치 현황
132	24호	禁烟說略	개혁책	中西聞見錄 30호 *萬國公報	O	아편의 해약과 근절 방법
133		論耶蘇教	종교	*萬國公報		유교와의 비교를 통해 기독교를 비판
134		亞里斯多得里傳	철학	中西聞見錄 32호 艾約瑟(英)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적 업적

135		江河表	현황표		각국 강들에 관한 양적 통계표
136	25호	德稅務司璫琳稟中國總理衙門請開鍊路條	개혁책		독일인 세무사 璫琳이 중국 총리아문에 철로 개설의 이로움을 설명하는 내용
137		陳 日本明治十七年歲出之部	국가현황		1883년 일본정부의 세출 내역표
138	26호	治道略論	개혁책	金玉均의 글	도로 정비의 필요성을 역설
139		隣交論	개혁책	*申報	중-일 관계의 개선을 제안함
140		治道論	개혁책	萬國公報 403期	중국이 당면한 10가지 時務에 대한 개혁책을 제안함
141		職工學校規則	제도		직공학교의 운영 규칙 - 일본의 사례 소개
142		俄國誌略	국가개관		러시아 지리, 정치, 종교, 인종, 국부, 군사, 산업 개관
143	27호	蠶桑撮要	농업	金思轍(조선), "蠶桑撮要"	잠업의 각 단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
144		鐵路利益	제도	*申報	일본의 철도 부설에 따른 효과
145		論洋債利弊	제도	*申報	국채의 장단점을 중국의 입장에서 설명
146		航海說	개혁책	한성순보 필진으로 추정.	항해술과 국익의 상관관계를 설명
147		中國海軍統計表/中國諸港口一覽表	현황표	*일본 統計集誌	1)중국 해군의 규모에 대한 통계표 2)개항한 중국 항구들에 거주하는 중국인과 외국인 인구 일람표



148		日本華族	제도	*時事新報		일본의 작위제도
149		日本官員統計表/日本有位者統計表/海外駐留日本人	현황표	*일본 統計集誌		일본 관원, 직위자, 해외 체류인 통계표
150	28호	各國歲出入一覽表	현황표	*1882년에 간행된 정치연표		세계 각국의 세입과 세출 일람표
151		俄國誌略續稿	국가개관			러시아 역사 개관
152		合衆國一天八白八十四年度財政要覽	현황표	*런던의 경제잡지		미국의 재정 현황
153		各國鐵道公債統計	현황표	*일본 統計集誌		각국의 철도 부설에 들어간 公債 현황표
154	29호	英國協會	사회			영국의 각종 직능별, 학문별 協會 소개
155		歷覽英國鐵廠記略	르포	格致彙編 1881년 6월호		영국의 각종 철제품 공장 견학기
156		歷覽英國鐵廠記略 續前卷	르포	格致彙編 1881년 7월호		영국의 각종 철제품 공장 견학기
157	30호	伊國誌略	국가개관			이탈리아 지리, 정치, 재정, 종교, 교육, 산업, 역사 개관
158	31호	和蘭誌略	국가개관			네덜란드 지리, 산업, 정치, 군사, 교육 개관
159		美國大統領	제도			미국 대선 제도와 역대 대통령 연표
160	32호	泰西各國小學校	제도			서양의 소학교 학제와 운영 규칙

161		地球養民關係	지리	格致彙編 券4, 李提摩太(Timothy Richard)		아시아 대륙의 인문, 자연지리 개관
162		地球養民關係 續前卷 亞非利加洲	지리	格致彙編 券4, 李提摩太(Timothy Richard)		아프리카 대륙의 인문, 자연지리 개관
163		火輪船速力說	기술			19세기 각 시기별 화륜선의 속력 증진 현황
164		禁烟論	개혁책	益聞錄 384期		아편 폐해를 막기 위한 개선책
165	33호	地球養民關係 續前卷 歐羅巴洲	지리	格致彙編 券4, 李提摩太(Timothy Richard)		유럽 대륙의 인문, 자연지리 개관
166		公法說/論戰國與局外交際之例	외교	公法便覽 (활용)		공법의 정의와 기능에 대한 설명, 공법상 전쟁시 局外(제3국)의 권리와 책임
167	34호	歷覽英國鐵廠記略 續前卷	르포	格致彙編 1881년 8월호		영국의 각종 철제품 공장 견학기
168		法國兵備記略	군사			프랑스 군대의 현황
169		歷覽英國鐵廠記略 續前卷	르포	格致彙編 1881년 9월호		영국의 각종 철제품 공장 견학기
170	35호	日本地租例	제도	*일본신문		메이지 유신 이후 개정된 일본의 지세 조례 소개
171		各國郵便收入表	현황표	*프랑스신문		각국의 우편을 통한 수입 현황표

172	36호	歷覽英國鐵廠記略 續前卷	르포	格致彙編 1881년 10월호		영국의 각종 공장 견학기
173		地球養民關係 續前卷 亞米利加洲	지리	格致彙編 券4, 李提摩太(Timothy Richard)		아메리카 대륙의 인문, 자연 지리 개관
174		澳大利亞洲	지리			오세아니아 대륙의 인문, 자연 지리 개관

# 參 考 文 獻

## I . 1차 자료

### 1. 奎章閣 소장 자료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日記》，奎 17836-v.1-44.

《中西聞見錄》，奎中 4590-v.1-29.

《中西聞見錄》 - 奎7880.

《機器火輪船源流考》 - 古8000-1.

《格致彙編》，奎中 4424-v.1-46.

《博物新編》，奎中 4922, 奎中 4923.

《萬國公報》 - 奎中4388.

《集玉齋書目》，奎11676.

### 2. 藏書閣 소장 자료

《內閣藏書彙編》，K2-4637.

### 3. 海外圖書館 소장 자료

G.P. Quackenbos, 河野通之, 岡千仞 日譯, 《米利堅志》，日本國會圖書館所藏本.

Ernst Faber著, 王炳堃 譯, 《德國學校論略》，日本國會圖書館所藏本.

D. Lardner, 橫尾平太 譯, 1882, 《泰西運輸論》，日本國會圖書館所藏本.

《中西聞見錄》，日本國會圖書館所藏本.

《六合叢談》，早稻田大學圖書館 所藏本.

《時事新報(復刊板)》，1986, 龍溪書舍, 東京大學圖書館所藏本.

《教會新報》，1868-1874, 林華書院, Harvard-Yenching Institute 소장본.

《萬國公報》，1874, 林華書院, Harvard-Yenching Institute 소장본.

《西學考略》，1883, 同文館, 總理衙門印, Harvard-Yenching Institute 소장본.

#### 4. 기타

《高宗實錄》

《承政院日記》

《漢城旬報》，1883-1884, 統里衙門 博文局. 서울대학교 소장본(관훈클럽영인본)

《青末民初報刊叢書-影印教會新報萬國公報》，1968, 華文書局股份有限公司.

《公報抄略》，고려대학교도서관 소장본.

俞吉濬, 1971, 《俞吉濬全書IV-政治經濟編》，一潮閣.

金允植, 1955, 《陰晴史》，國史編纂委員會.

## II. 연구서

### 1. 단행본

\*김도형, 2014, 《근대 한국의 문명전환과 개혁론》，지식산업사

\*손석춘, 2005, 《한국 공론장의 구조 변동》，커뮤니케이션북스

\*차배근, 2008, 《중국근대언론발달사(1815-1945)》，서울대학교출판부

\*한림과학원 편, 2013, 《동아시아 개념연구 기초문헌해제Ⅱ》，선인

\*鄒振環, 2013, 《지리학의 창으로 보는 중국의 근대》，한지은 역, 푸른역사

\*葛兆光 저, 이연승 옮김, 2008, 《사상사를 어떻게 쓸 것인가》，영남대학교출판부

\*熊月之, 2011, 《西學東漸与晚清社會》，中國人民大學出版社.

\*春原昭彦, 1990, 《日本新聞通史》，新泉社.

\*守屋毅, 1988, 《モースと日本》，小學館.

\*Wylie, Alexander, 1867, *Memorials of Protestant Missionaries to the Chinese: Giving A List of their Publications and obituary Notices of the Deceased*, American Presbyterian Mission Press.

\*Elman, Benjamin, 2005, 《On their own terms》，Harvard University Press.

## 2. 논문

- \*김봉진, 1986, 〈漢城周報의 발행과 조선의 萬國公法 수용〉, 《한국 전통사회의 구조와 변동》, 문학과지성사, 149-208쪽.
- \*김세민, 1997, 〈漢城旬報, 周報를 통해 본 만국공법관〉, 《鄉土서울》 第57號,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37-161쪽.
- \*김연희, 2011, 〈《漢城旬報》 및 《漢城周報》의 과학기술 기사로 본 고종시대 서구 문물 수용 노력〉, 《한국과학사학회지》 Vol.33, 1-39쪽.
- \*김수자, 2012, 〈근대 초 《한성순보》에 나타난 공학으로서의 과학과 근대지식〉, 《梨花史學研究》 45, 141-168쪽.
- \*박정규, 1991, 〈朝報와 漢城旬報의 관계에 대한 考察〉, 《한국사회과학연구》 弟10輯 187-204쪽.
- \*송만오, 1999, 《韓國의 近代化에 있어 中人層의 활동에 관한 研究》, 전남대학교 박사논문
- \*연갑수, 2008, 《고종대 정치변동 연구》, 일지사.
- \*이광린, 1969, 〈漢城旬報와 漢城周報에 對한 一考察〉, 《歷史學報》 第三十八輯, 1-45쪽.
- \*장영숙, 2009, 〈《內下冊子目錄》을 통해 본 고종의 개화관련 서적 수집 실상과 영향〉,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8, 205-240쪽.
- \*장영숙, 2012, 〈『集玉齋書目』 분석을 통해 본 고종의 개화서적 수집 실상과 활용〉, 《한국근현대사연구》, 제61집, 7-39쪽.
- \*전용훈, 2013, 〈19세기 조선에서 서양 과학과 천문학의 성격-청조 고증학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과학사학회지》 제35권, 435-464쪽.
- \*정대철, 1984, 〈漢城旬報, 周報의 開化方向에 관한 考察〉, 《韓國學論集》 제5집,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93-126쪽.
- \*정진석, 1983, 〈漢城旬報 周報에 관한 研究〉, 《관훈저널》 36, 74-142쪽.
- \*정진석, 1997, 〈한성순보의 잡지 논쟁〉, 《出版學研究》, 429-431쪽.
- \*채백, 1990, 〈한국 근대 신문 형성과정에 있어 일본의 역할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 \*최준, 1983, 〈漢城旬報의 史的 意義〉, 《관훈저널》 36, 23-38쪽.

- \*최정화, 1987, 〈漢城旬報에 나타난 文明開化論의 성격〉, 동국대학교 역사교육과 석사논문.
- \*한보람, 2005, 〈1880년대 조선정부의 개화정책을 위한 국제정보수집-《漢城旬報》의 관련 기사 분석〉, 《震檀學報》 100, 109-164쪽
- \*한실비, 2014, 〈『漢城旬報』의 淸佛戰爭 보도에 나타난 개화지식인의 대외인식〉, 단국대학교 석사논문
- \*Meng, Yue, 1999, “Hybrid Science versus Modernity: The Practice of the Jiangnan Arsenal 1864-1897,” *EASTM* 16, pp.13-52
- \*肖朗, 2000, 〈我國近代比較教育研究的早期嘗試——論丁韞良的外國教育考察及《西學考略》〉, 《比較教育研究》 S1, pp.15-19.

## Abstract

# Origins of the structure and strategy of reconstituting scholarly articles in *Hanseongsunbo*

SangJae Lee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seeks to examine the *Hanseongsunbo*, the first modern newspaper in Korea, from a standpoint of intellectual history. *Hanseongsunbo* was the gazette of Chosŏn government that was published every ten days in literary Chinese to distribute various international news and Western knowledge to intellectuals of Chosŏn society. It was first published in October 1883 and remained in publication for approximately a year until the impact of the Gapsin coup in December 1884 led to its discontinuance. Chosŏn government published *Hanseongsunbo* to adjust to the new world order, or, as it was called, 'the order of the international law.' For this reason, the majority of the content in *Hanseongsunbo* consisted of news articles about international affairs and scholarly articles about Western knowledge.

In the inaugural issue of *Hanseongsunbo*, the editorial members communicated their intention to provide praise and criticism as well as moral judgment regarding new information and knowledge. In this way, the editors of *Hanseongsunbo* hoped to provide readers with scholarly standards and moral sensibility in the face of new Western knowledge. Among the numerous articles that contained information about foreign affairs and knowledge, scholarly articles most clearly reflected the aforementioned editorial intent. Editors not only selectively utilized information from newspapers, magazines and scientific-technological books published in China and Meiji Japan, but also



recomposed the forms and contents in various ways. *Hanseongsunbo* could be considered as a publication of intellectual production that preserved unfamiliar, yet important knowledge and information through hybrid content of its scholarly articles. In this sense, the study of *Hanseongsunbo* should be expanded into the context of intellectual history.

This thesis traces the origins of this unique structure of *Hanseongsunbo*. A newspaper with over 70 percent of foreign articles was uncommon compared to other types of media also referred to as newspapers. According to Yu Gil-Jun who led the publication of *Hanseongsunbo*, a high proportion of foreign articles was inevitable due to the backward domestic transportation and the culture of secrecy in Chosŏn society. In contrast, a more well-equipped collection of books, newspapers, and magazines containing a range of foreign information and knowledge that was gathered by the Chosŏn government was more readily accessible. Unlike the conventional assumption that *Hanseongsunbo* had been modeled upon Fukuzawa Yukichi's *Jiji Shinpō*, the structure of *Hanseongsunbo* has more elements in common with magazines published by Protestant missionaries in China. There are clear connections and evident similarities between *Hanseongsunbo* and *The Globe Magazine* (*Wan'guo gongbao*, Shanghai, 1874–1883), in particular, regarding their respective content and structure.

To evaluate the *Hanseongsunbo* as a subject of the intellectual history, therefore, the subject matters, sources, and contents of scholarly articles must be analyzed first. Since scholarly articles were composed on the basis of the archive of Western knowledge assembled by the Chosŏn government, the articles reflect characteristics of the archive. There have been difficulties in discovering the exact origins of these articles, as many of them did not specify their sources. By examining the sources by comparing articles with books and magazines that were circulating in East Asia,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sources of scholarly articles were much more diverse and up to date than previous assumptions. Based on revealed sources of articles, this study was able to reveal the editors' strategies of reconstituting Western knowledge by distinguishing editors' own writing and quoted part of articles. Their strategies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adding their own evaluation of quoted knowledge information, reconstituting articles from multiple and linguistically-different sources, inserting certain interests of the Chosŏn government, and drawing upon familiar examples in order to explain unfamiliar information. Through these strategies, editors of the *Hanseongsunbo*

reconstituted various Western knowledge in their own ways. However, their gains of reconstituting Western knowledge through *Hanseongsunbo* was limited because of the newspaper's short duration of publication.

keywords : *Hanseongsunbo*, Wan, *Gongbochoryak*, scholarly article, Western knowledge, reconstitution

*Student Number* : 2013-22770